



2025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활동 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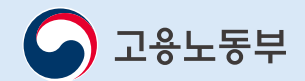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2025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활동 사례집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2025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활동 사례집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2025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활동 사례집

—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목차

01. 개요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란?	7
2025년 주요 추진 내용	8

02. 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우수활동 사례

서울, 강원권	서울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현장 ☎ 인터뷰 SK브로드밴드 안전보건기획팀 매니저 최강일	14
	강원	원주 댄싱 카니발 연계 안전문화 캠페인	18
	원주	2025 원주·황성지역 어린이 산업안전 포스터 공모전	20
	강릉	강릉지역 외국인 노동자 대상 '안전보건 슬로건 공모전'	22
	태백	태백·삼척지역 건설 현장 온열질환 예방 활동	24
	영월	강원도 영월 산업안전보건 골든벨 현장 ☎ 인터뷰 (주)오미아코리아 현장노동자, 골든벨 우승자 오현주	26
경기권	경기	수원·화성 세계인의 날 축제 현장 ☎ 인터뷰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센터장 손병희	32
	안양	의왕 어린이 철도 축제 안전문화 캠페인	36
	안산	안산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 안전문화 캠페인	38
	성남	2025 물류창고 안전일터 조성의 날	40
	평택	평택 안성시 내리 다문화 축제	42
충부권	인천	인천 SSG랜더스필드 대국민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 인터뷰 동서식품 팀장 허정식 / 삼성바이오 프로 정찬연	46
	부천	배달 라이더 대상 온열질환 예방 합동 캠페인	50
	의정부	포천 세계인의 날 글로벌 페스티벌 산재예방 캠페인	52
	고양·파주	"안전 한 잔" 커피차 캠페인 ☎ 인터뷰 CJ ENM 안전관리 1팀 우태수	54
부산권	부산	수리조선업 보호구 관리 협약식 및 현장 점검의 날	60
	창원	(주)케이조선 올 세이프 데이	62
	진주	대중소기업 안전문화 공유 캠페인	64
	통영	외국인 노동자 맞춤형 위험표지 제작·배포	66
	울산	2025 대표 안전메시지 활용 안전행동 챌린지	68
	양산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VR체험교육 확산 ☎ 인터뷰 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교육팀장 신지윤	70

대구권	대구	안전문화포럼 with 현대자동차 ☎ 인터뷰 현대자동차 안전팀 팀장 김용민 / (주)신영 안전보건팀 팀장, 책임매니저 강승원	76
	포항	2025 포항철강마라톤 대회 안전문화 캠페인 현장 ☎ 인터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감독관 권민혁	80
	구미	구미 외국인 주민 문화축제 현장	84
	영주	문경 찻사발축제 연계 캠페인	86
	안동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현장의 안전문화 캠페인	88
광주권	광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캠페인 ☎ 인터뷰 캠페인 참여자 노일섭(가명) 부자	92
	전주	전북현대모터스 FC 관람객 대상 안전문화 캠페인 개최 ☎ 인터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감독관 서재훈	96
	익산	원광대학교 축제(대동제) 연계 안전문화 확산 홍보 활동	100
	군산	고창 청보리밭 축제 / 부안 마실 축제	102
	목포	신안 퍼플섬 라벤더 축제 연계 캠페인	104
	여수	2025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한마당 행사	106
	제주	제17회 JEJU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108
대전권	대전	제3회 대전 특성화고 안전지식경진대회 현장 ☎ 인터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양민경	112
	보령	서천 한산모시문화제 안전메시지 확산 캠페인	116
	청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 ☎ 인터뷰 (주)면사랑 안전보건부 부장 진경동	118
	충주	예비산업인력 안전문화 캠페인	122
	천안	2025 아산 백의종군길 걷기대회 캠페인	124
	서산	2025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정기보수 안전캠페인	126
03. 본부 우수사례			
2025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130
중앙 MOU 기관 방문	☎ 인터뷰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차장 김용범		
	이넵스(주)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캠페인		134
	☎ 인터뷰 이넵스(주) 대표 이동일		
	HD현대삼호 안전문화 확산 활동		138
☎ 인터뷰 HD현대삼호 상무 이승훈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동아오츠카-제주항공 민관합동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142
☎ 인터뷰 동아오츠카 사이언스 파트 책임(파트장) 김경희			

PART 01.



개요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2023년 전국 39개 지역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 조직으로 출범했다.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의 노력은
일상 속에서 '함께 지키는 안전'이라는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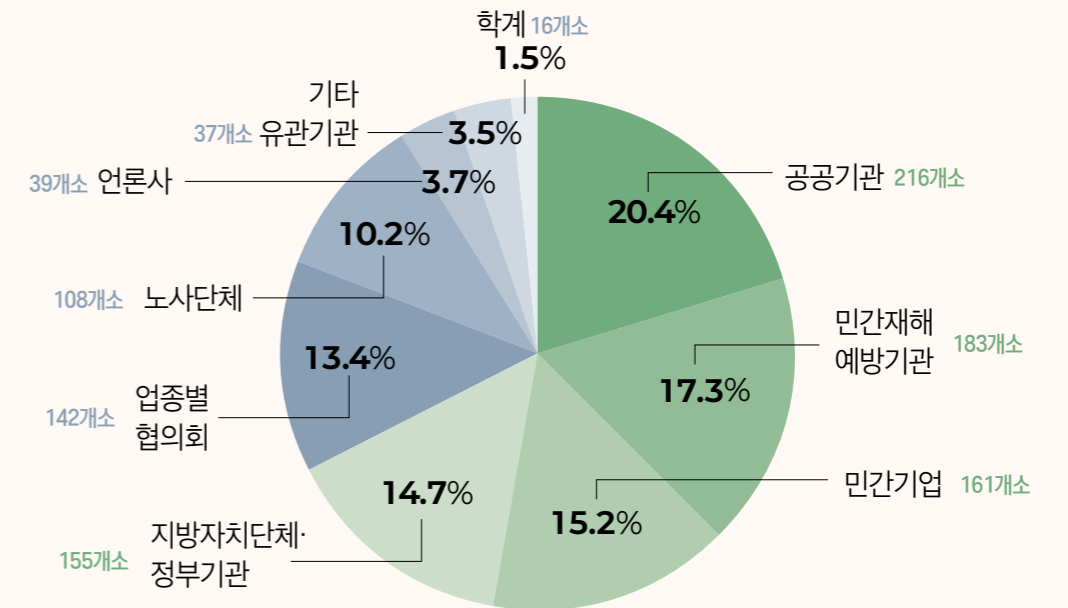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란?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2023년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에 발맞춰 조직된 단체이다. 전국 39개 지역에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경시 의식을 개선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국민 캠페인 ▲현장점검과 연계한 안전일터 조성의 날 행사 ▲지역 주요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메시지 확산 ▲국민 참여형 경진대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이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했고 2025년에는 총 1,057개 기관('23년 867개소 대비 190개소 확대)이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했다.

전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구성 현황('25. 12월)



2025년 주요 추진 내용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약칭: 안실단)은 2025년 ▲현장 실천 ▲안전의식 확산 ▲안전한 일터 ▲안전문화 확산 협약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각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현장 실천에 집중하는 4대 안전 캠페인 추진

01



사업장 내 주요 위험·구역에 안전메시지를 부착하는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 사업에 동참(1,721회)했고 공공기관 인쇄물, 민간제품, 현수막, 전광판 등을 통해 안전메시지를 확산해 국민 안전의식 향상(3,468회)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안전분야 우수사업장의 안전수칙(안전원칙·안전강령)을 취합, 소규모 사업장에 제공하여 자체 안전수칙 제정을 유도(192회)하기도 했고,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업·공공기관의 인프라 및 안전 콘텐츠를 공유 하도록 해 대중소 안전 상생(359회)을 도모했다.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지역별 특화 활동 전개

02

안전문화의 지역 확산을 위해 안전문화 이벤트 부스 운영, 안전수칙 홍보자료 배포, VR 체험 교육 등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하는 확산 활동(100회)을 펼치는 한편, 지역 내 기업·공공기관과 협업하여 각종 제품 및 시설물 등을 통한 안전메시지 확산 캠페인(108회)을 실시하기도 했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확산 전개

03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7월 23일부터 시행, 8월부터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재래형 사고예방을 위해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5대 중대재해 및 폭염(한파) 대비 12대 핵심안전수칙을 중점 확산(311회)했다.

중양 차원의 업종별 안전문화 확산 협약 이행 추진

04

업종별 대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업계 전반의 안전문화 확산 전개에도 힘을 쏟았다. 특히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회의, 합동점검·캠페인 등 617회의 다양한 협약 이행 활동을 추진했으며, '전문건설업 안전문화 확산 협의체'를 구성하여 위험표지판 부착,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등 858회의 협약 이행 활동도 추진했다.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협의체 협약 이행 활동(617회)



- 합동점검 134회
- 협의체 정기회의 18회
- 현장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166회
- 안전보건교육 220회
- 안전표지부착 등 기타 활동 79회

전문건설업 안전문화 확산 협의체 협약 이행 활동(858회)



- 위험표지판 부착 388회
- 5대 중대재해 및 12대 핵심안전수칙 전파 23회
-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155회
- 안전관리 노동자 참여문화 조성 133회
-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및 확산 40회
- 기타 협의체 운영 등 119회

PART 02.



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우수활동 사례

안전은 현장에서 완성된다.

전국의 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산업 현장과 지역 여건에 맞춘 실천으로
'함께 만드는 안전문화'의 뿌리를 단단히 다지고 있다.

1

서울, 강원권

2

경기권

3

충부권

4

부산권

5

대구권

6

광주권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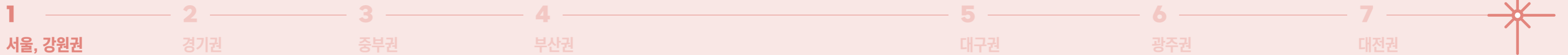
대전권



1 서울, 강원권

- 서울 14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현장
- 강원 18 원주 댄싱 카니발 연계 안전문화 캠페인
- 원주 20 2025 원주·횡성지역 어린이 산업안전 포스터 공모전

- 강릉 22 강릉지역 외국인 노동자 대상 '안전보건 슬로건 공모전'
- 태백 24 태백·삼척지역 건설 현장 온열질환 예방 활동
- 영월 26 강원도 영월 산업안전보건 골든벨 현장



민관이 함께 만든 여름철 안전문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SK브로드밴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현장

5월 28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는 초여름을 앞두고 ‘온열질환 제로 캠페인’이 열렸다. 서울 안실단이 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산업현장 종사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여름철 안전수칙을 전달하고,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1.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그늘·휴식' 현수막과 함께



2. '사회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 연장 체결을 기념하며 3. 협약식 체결에 앞서 협약 내용을 안내

서울, “여름을 준비하는 안전의 시작”

같은 날 SK브로드밴드 동작사옥에서는 지난해 체결된 ‘사회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년 연장하는 협약이 체결되며 민관 협업이 본격 강화됐다. 또한 본격적인 캠페인에 들어가기에 앞서 SK브로드밴드 협력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퀴즈쇼 형식을 빌려 여름철 안전수칙을 홍보하는 시간도 가졌다. 보라매공원 현장에는 SK브로드밴드 협력사 노동자들 뿐 아니라, 시민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도 참여해 안전문화 확산의 장이 펼쳐졌다. 주요 활동은 생수병과 비타민 패키지 배포였다. 비타민 패키지에는 웹툰 형식으로 개정 법령과 보건조치 의무가 인쇄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생수병은 ‘물·그늘·휴식’이라는 폭염 예방 3원칙을 강조했고, 비타민은 노동자의 회복과 실천의 메시지를 담아 캠페인의 상징물로 자리 잡았다.

현장에서는 서울 안실단이 폭염 작업의 정의, 예방수칙 등을 설명하며 시민들과 직접 소통했다. 특히 SK브로드밴드 협력사 직원들의 실제 작업 환경과 경험이 소개되면서 온열질환이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님을 실감하게 했다. 결국 이 캠페인은 폭염 예방의 중요성을 시민 개개인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게 한 실천형 안전문화였다. 생수 한 병, 비타민 한 알에 담긴 메시지는 안전이 특정 직업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또한 서울청 산하 각 지청과 공단 지사들도 건설현장, 물류업체 등을 직접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안내하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참고자료 다운로드 : <브로비의 슬기로운 안전생활> (온열질환 예방수칙)





4. 폭염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브리핑 시간
5. 시민들에게 생수와 비타민을 배포하며 안전의식 고양

콘텐츠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1회성 홍보가 아니다. 2023년 체결된 3자 간 업무협약이 기반이 되어, 정부 정책과 민간 미디어 간의 장기적 협력이 구축된 것이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정부 안전정책 홍보 협력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및 송출 ▲현장 중심의 실천형 캠페인 강화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서울 안실단이 추진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온열질환 예방 지침, 위험성 평가 제도 등은 앞으로 SK브로드밴드의 B tv, 고지서, 웹툰 콘텐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국민에게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민관 협력, 지속 가능한 안전 생태계를 향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6월 1일 법 시행일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캠페인이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정착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고,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장도 “매년 더워지는 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폭염 대비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민관이 함께 만든 협력 모델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이 유기적으로 만나야 진짜 ‘안전’이 실현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날이었다.

생생 Talk Talk! 인터뷰

SK브로드밴드 안전보건기획팀 매니저 최강일

Q 이번 MOU의 주요 목적과 협력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번 업무협약(MOU)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문화 확산과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홍보를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협력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서울 안실단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온열질환 예방 지침’ 등 다양한 정책 정보를 SK브로드밴드의 B tv, 고지서, 웹툰 등의 플랫폼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둘째, SK브로드밴드는 자사 캐릭터 ‘브로비’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맞춤형 안전 콘텐츠를 제작·송출하며,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셋째, 실제 산업현장을 반영한 체험 중심 캠페인과 교육 활동을 통해 노동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협력사와의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Q 5월 28일 캠페인의 기대 효과는 무엇이었나요?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진행된 ‘온열질환 제로 캠페인’은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도 안

전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한 실천형 캠페인이었습니다. 폭염 예방 3원칙(물·그늘·휴식)을 강조하며, 노동자들의 실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현장의 생생함을 더했고, 시민들의 공감도 끌어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안전 인식의 일상화 ▲노동자의 자기 보호 능력 향상 ▲정부 정책의 실질적 전달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SK브로드밴드 내부와 협력사에서 온열질환 예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SK브로드밴드와 협력사 노동자들은 통신 장비 설치, 유지 보수,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상·옥상·밀폐공간 등 고온 환경에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특성상 여름철에는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맞춤형 예방 활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앞으로 온열질환을 비롯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앞으로도 저희 SK브로드밴드는 계절별 안전 리스크에 맞춰 여름에는 온열질환, 겨울에는 낙상·저체온증 등 시기별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통해 법령 개정 내용과 안전 수칙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단발성이 아닌 연중 캠페인을 이어가겠습니다. 협력사를 대상으로는 공동 교육, 현장 안전 점검,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파트너십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구성원과 협력사의 건강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안전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전 인식의 일상화,
작은 실천이
생명을 지킵니다.”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5.5.28.(수) 10:00~14:00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 내용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홍보, 웹툰 부착
비타민·생수병 배포, ‘물·그늘·휴식’ 슬로건 전파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카드뉴스(2025.5.22.)

보다 안전하게, 보다 많은 사람에게

강원 안실단의 '안전한 일터 만들기' 캠페인이 '원주 댄싱 카니발' 축제 현장에서 9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진행 되었다. 강원 안실단이 운영한 안전문화 부스에는 많은 사람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다.

원주 댄싱 카니발 연계 안전문화 캠페인



1. 강원 안실단이 운영한 안전문화 부스 2. 안젤리와 기념사진 촬영 3. 안전메시지가 담긴 말풍선 4. '안전한 일터 만들기' 캠페인을 함께한 사람들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

'원주 댄싱 카니발'은 K-POP 댄싱, 프리 댄싱 등 K-댄스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축제다. 이번 축제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WONJU: Wave of Wonder'라는 주제로 원주시에 소재한 댄싱공연장에서 개최되었다. 댄싱공연장은 4천여 개가 넘는 관람석을 보유한 야외 공연장으로, 공연장의 규모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는 축제인지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원주 댄싱 카니발은 댄서들만의 댄스 축제가 아니라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대표 축제로, 70여 개의 공공·민간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안전한 일터 만들기' 캠페인은 많은 노동자에게 안전 수칙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만큼 축제 현장에 안전문화 부스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5대 중대재해와 12대 핵심안전수칙을 중점적으로 전파하여 지역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본격적인 캠페인에 앞서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축제인 만큼 공연장 시설 안전 점검을 진행, 안전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을 철저히 점검하여 행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였다.

안전수칙을 익히는 다양한 방법

안전문화 부스는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마스코트 안젤리 등신대와 말풍선 등으로 꾸몄다. 말풍선에는 '추락 방지를 위해 작업발판, 작업난간, 추락 방지망 설치', '부딪힘 방지를 위해 안전통로 확보, 작업장 정돈' 등 12대 핵심안전수칙과 "아빠, 엄마 안전하세요!"

등의 메시지를 담았다. 안전문화 부스는 포토존으로도 운영되었다. 참가자들은 포토존에서 촬영한 사진을 개인 SNS에 해시태그(#안전한일터프로젝트)를 달아 게시하거나 안전 상식 퀴즈의 정답을 맞힘으로써 뽑기판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 받았다. 기념품으로는 구급함, 피크닉 매트, 파우치, 이온 음료, 물티슈 등이 준비되었다. 사람들은 축제를 즐기듯 안젤리와 함께 사진을 찍거나 말풍선을 찢고 퀴즈를 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캠페인 2일 차인 9월 27일에는 '찾아가는 VR 서비스'를 활용하여 위험 요인 현장 체험 교육을 실시하였다. VR을 체험한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위험한 상황을 확인하니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깨달았다", "안전수칙은 거듭 강조해도 모자란 것 같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상담, 건강 측정 및 상담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본부장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국민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과제로, 앞으로도 일상 속 12대 핵심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행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5.9.26.(금)~9.27.(토) 10:00~18:00 원주시 댄싱공연장
- ➔ 내용 : 행사장 안전 점검, '안전한 일터 만들기' 캠페인, 안전문화 부스 운영 등

어린이 눈에 담긴 안전의 가치



2025 원주·횡성지역
어린이 산업안전 포스터 공모전

2025년 봄, 원주와 횡성 지역에서는 어린이들의 시선으로 산업현장의 안전을 표현한 특별한 공모전이 열렸다. 2013년부터 2020년 사이 출생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된 ‘어린이 산업안전 포스터 공모전’은 건설업과 제조업 현장에서 종사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을 주제로 했다. 접수 기간은 4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였으며, 총 76점의 작품이 출품돼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1. 어린이 산업안전 포스터 공모전 수상자들 2.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환기시킨 수상작 전시 3. 그림을 매개로 한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4. 어린이들에게 안전의 의미와 성취의 기쁨을 경험케 함

어린이 시선에 담긴 안전메시지

이번 공모전은 단순한 미술 대회가 아니었다. 산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다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안전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최우수상은 장*유(8세) 어린이가 차지했으며, 우수상에는 임*진(6세), 안*서(8세), 박*량(6세)이, 장려상에는 김*은(11세), 곽*민(8세), 박*윤(11세), 이*은(8세), 김*원(7세), 김*을(10세) 등 총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어린이들의 작품에는 헬멧을 쓴 작업자, 안전 장비를 갖춘 현장,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노동자의 모습 등이 다양한 색채로 표현됐다.

지역사회와 함께 확산되는 안전문화

선정된 10점의 작품은 단순히 전시회장에서 머무르지 않는다. 원주와 횡성의 건설현장 가림막에 대형 인쇄물로 활용돼, 현장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안전의 메시지를 전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내부에도 전시돼 공무원과 방문객들에게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이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작은 안전 교과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시상식은 7월 7일 오후 5시에 열렸다. 수상자들에게는 은누리상품권이 전달되었고, 작품은 단순한 미술적 성취를 넘어 사회적 의미를 지닌 결과물로 평가됐다. 최우수상 수상작에는 30만 원, 우수상에는 10만 원,

장려상에는 5만 원의 상품권이 주어졌다. 이는 어린이들에게 안전의 의미를 배우는 동시에 성취의 기쁨을 함께 경험하게 했다.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안전문화

이번 공모전은 산업안전을 어른들만의 과제로 두지 않고,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함께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 속에는 “안전은 곧 생명을 지키는 약속”이라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는 가정으로, 학교로, 지역사회로 확산되며 생활 속 안전문화의 초석이 되고 있다. 결국 원주·횡성 지역에서 열린 어린이 산업안전 포스터 공모전은 ‘그림’이라는 매개를 통해 안전문화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한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산업현장의 안전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 눈에까지 닿아 있는 가장 가까운 삶의 과제임을 확인시켜준 자리였다.

행사 개요

- 행사기간 : 작품 접수 2025.4.21.(월)~5.23.(금) 시상식 7.7.(월) 17:00~
- 대상 : 원주시·횡성군 거주 어린이 (2013~2020년 출생자)
- 내용 : 산업현장 안전을 주제로 한 포스터 공모, 총 76점 접수 → 10점 수상작 선정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만드는 안전문화

강릉지역 외국인 노동자 대상 '안전보건 슬로건 공모전'

지난 봄, 강릉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슬로건 공모전'이 열렸다. 이번 공모전은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안전의 중요성을 스스로 표현함으로써 자율적 참여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1. 안전보건 슬로건 공모전 수상자들



2. 안전보건 슬로건 공모전 시상현장

공모전에는 포스코이앤씨, (주)미래도건설, 대명건설, 계룡건설, 금호건설, 동아건설, 경남기업, 현대산업개발, 강릉자이르네디오션, 현대엔지니어링, SK에코플랜트 등 11개 건설 현장 기업이 참여했다. 각 현장에서는 자체 공모전을 시행하고 우수작에 대해 포상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이 적극적인 현장 운영과 참여 활성화 공로로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현장 중심의 캠페인, 외국인 노동자 주역으로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속초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4월 8일, 현장소장을 비롯한 367명이 참여한 안전문화캠페인 행사가 열렸다. 산업전사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행사에서는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졌다. 표어 부문에서는 중국, 베트남, 태국 등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들이 참여해 각자의 언어로 안전의 의미를 담았다. 장려상은 중국 노동자에게, 우수상은 중국, 베트남 노동자에게 돌아갔으며, 최우수상은 중국 노동자가 수상했다. 대상은 '안전을 담보하며, 꿈을 짓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제출한 태국 노동자가

차지했다. 또한 동영상 부문에서는 중국 노동자 3명이 장려상을 받았고, 최우수상은 우즈베키스탄 출신 노동자에게 돌아갔다. 행사는 무재해 구호 제창과 함께 마무리되며 현장의 결속을 다졌다.

"안전은 모두의 기본가치"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장은 "안전은 국적과 언어를 넘어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기본가치"라며, "이번 활동은 외국인 노동자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안전문화 정착의 주체로 확장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자율과 참여 중심의 안전문화 실천 활동을 지역 특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모전은 '함께 만드는 안전문화'의 실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역 사회와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5.4~5월 내 현장별 자체 진행
강릉지역 건설현장 노동자
- 내용 : 건설현장 자체 영상·표어 공모전 진행 및 현장 자체 포상(11개 현장)

폭염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연대

태백·삼척지역 건설 현장 온열질환 예방 활동

한여름 폭염이 이어진 지난 7월 24일, 강원도 삼척시 이사부광장 주차장 일원에서 태백·삼척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의 현장 중심 안전활동이 펼쳐졌다. ‘물·그늘·휴식’이라는 기본 수칙부터 현장 맞춤형 노하우까지, 이번 활동은 단순한 점검을 넘어 대중소 상생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의미 있는 실천으로 이어졌다.



1. 대중소 상생강화를 위한 안전용품 전달식 2. 건설현장 안전수칙 및 노하우 전달도 함께 진행 3. 아이스백, 안전화, 소화기 등 25종의 물품 전달

대중소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현장

이번 활동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주제로, 관내 소규모 건설현장 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라17통 경로당 신축공사(세움건설㈜)와 정라23통 경관녹지 산책로 설치공사(휴과나무) 현장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태백 안실단과 대형 건설사 안전관리자들이 함께 참여해 현장 밀착형 지원을 실시했다. 포스코이앤씨, 삼성물산, 롯데건설, 두산에너빌리티(주) 등 15개 내외 대형 건설사 안전관리자들은 그동안 축적해 온 안전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소규모 현장에 적용 가능한 위험요소 점검 방법과 폭염 대응 노하우를 공유했다. 현장 여건상 안전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현장에 대형사의 전문성이 더해지며, 상생 협력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했다.

폭염 대응, 현장에서 답을 찾다

이날 현장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함께 이뤄졌다. 태백 안실단과 대형 건설사에서 준비한 안전화, 아이스박스, 보냉장구 등 총 25종의 안전보건 물품이 소규모 현장에 전달됐으며, 노동자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또한 안실단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 위험 상황을 가정해 ‘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 등

OPS 핵심 수칙을 중심으로 한 폭염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홍보 자료가 배부됐고, 짧지만 반복적인 설명을 통해 폭염 대응 수칙이 자연스럽게 현장에 스며들도록 했다.

현장 점검에서 지속 관리로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이번 합동 점검을 계기로, 선정된 2개 건설현장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했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소장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위험 작업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추락 위험 장소 안전난간 설치, 작업장 정리정돈과 안전통로 확보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단속 위주의 점검이 아닌, 현장과 소통하며 개선 방향을 함께 찾는 방식으로 진행돼 현장 관계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5.7.24.(목) 15:00~16:30
이사부광장 주차장
- 내용 :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안전보건 물품 지원, 현장 점검 및 안전관리 노하우 공유

내 손으로 올리는 안전 골든벨



강원도 영월
산업안전보건 골든벨 현장

‘산업안전보건 골든벨’이 7월 29일 화요일 영월군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산업안전보건 골든벨은 중대 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 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열린 이 대회는 고용노동부 영월 출장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소방서 등 영월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에서 주관했다. 이 행사는 시멘트 및 석회석 제조업 종사자 중 관리감독자 및 현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건강상담, 소방체험 등도 함께 이루어졌다.



1. 골든벨에 참여하는 산업 현장 종사자들



2. 골든벨 포스터
3. 산업안전보건 골든벨 개회사
4. 정답을 외치는 참가자들
5.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참가자들

안전을 위한 축제의 장

행사는 유쾌하게 막을 올렸다. 참여자들은 행사 시작 전 음악에 어깨를 들썩이기도 하고, 호응을 보내기도 했다. 실내체육관 안은 그들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번 행사에는 쌍용씨앤이(주)영월공장, 한일현대시멘트(주)태영이엠씨, (주)오미아코리아-함백공장 등 시멘트 및 석회석 제조업 총 10개소가 참여했다.

골든벨은 오후 2시,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장의 개회사로 막을 열었다. 개회 선언 후 144명의 참여자와 함께 행사가 시작되었다. 행사는 TV 프로그램 ‘도전!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사업장별 근무복, 운동화를 착용하고, 개인 칠판을 자유롭게 꾸몄다. 강당 한가운데 전광판에는 한껏 꾸며진 칠판들이 송출되어, 행사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행사는 객관식과 주관식 문제, O·X 문제 등을 1문제씩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난이도는 80인 선발, 10인 선발, 3인 선발용으로 나뉘었고, 패자부활전을 통해 탈락자와 방청객의 관심을 계속 유지시켰다. 또한 난이도 있는 악마의 문제를 준비하여 참여자 수를 적절히 조절했다.

중간중간 분위기 환기를 위한 행사가 준비되어, 참여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기도 했고, 뽑기를 통해 기념품을 증정하기도 했다. 기념품으로는 상품권, 가전제품 등이 지급되었다.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상기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기도 한 것이다.



6. 안전수칙 간판 7. 최후의 3인 선발전 8. 우승을 차지한 3인

퀴즈에서, 근무 현장까지

골든벨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참여자 모두가 통과할 만큼 느슨하던 분위기가, 한두 명의 탈락자가 생기면서 변하기 시작했다. 어느덧 절반 가까이 탈락하자 실내체육관 내부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탈락자들은 아쉬움 반, 응원하는 마음 반으로, 남아있는 참여자들의 분투를 지켜보았다. 문제는 점점 어려워졌고, 참여자들도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참여자가 절반 쯤 떨어졌을 때 패자부활전에 도전할 기회가 생겼다. 패자부활전 문제는 가수 박성온이 부른 노래의 제목을 맞추는 것이었다. 가수 박성온과 안전보건공단이 2023년 협업해 만든 노래는 현장에서 일하는 부모님을 바라보는 아들의 심정을 담은 노래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심금을 울린 노래였다. 노래 제목은 '아들의 소망'이었으며, 이 노래로 인해 많은 탈락자가 다시 문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자들의 고군분투 끝에, 어느새 3명의 참여자만 남게 되었다. 이들은 거침없이 문제를 풀어나갔다. 주관식 문제는 앞서 보았던 문제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다. 마침내 마지막 문제가 제시되었을 때, 최후의 3인 중 한 명이 골든벨을 울렸다. 명쾌한 골든벨 소리가 실내체육관 안을 가득 채우며,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행사 참여자들은 "공부를 통해 현장에서 주의해야 하는 안전 수칙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수칙을 잘 지켜 안전문화 확산에 일조하겠다.",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어려운 문제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노동자들의 안전불감증이 해소되길 바란다." 등의 소감을 남겼다.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5.7.29.(화) 영월군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 내용 : 대면 퀴즈대회, 소방훈련 등

생생 Talk Talk! 인터뷰

(주)오미아코리아 현장노동자, 골든벨 우승자 **오현주**



“안전문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Q 골든벨 우승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동료들과 함께 회사 대표로 나왔는데, 운이 좋게 우승하게 되어 기쁩니다. 평소에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우승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퀴즈를 푸는 내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중간에 탈락하기도 했지만, 패자부활전을 통해 다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Q 행사에 참여하기 전, 안전 수칙을 공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회사 일과 가사를 함께하다 보니 공부할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틈이 날 때마다 조금씩 기출 문제를 살펴보고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객관식도 주관식처럼 공부한 게 가장 도움이 됐습니다. 단순히 암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적어가며 안전 수칙을 머릿속에 새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근무 현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안전 수칙을 지켜가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Q 시멘트 및 석회석 제조업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중대 재해는 무엇이 있나요?

화물차 낙상 사고를 들 수 있습니다. 낙상 사고 시 안전대나 안전모 등을 하지 않아 큰 사고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협착' 사고라고 하여, 기계 사이에 몸의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기계의 전원을 빠르게 차단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마찬가지로 큰 사고로 번지게 됩니다.

Q 평소 현장에서 일할 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경 쓰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작업에 들어가기 전 안전모를 썼는지, 형광조끼를 착용했는지 확인하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Q 이번 행사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 번 더 안전 문제를 상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알게 된 것을 잊지 않고, 현장에도 적용하여 안전한 작업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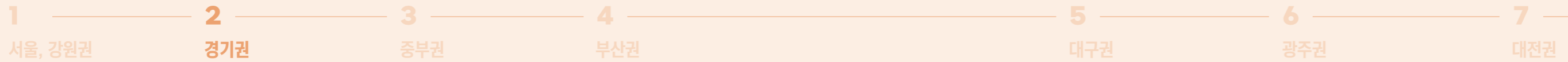
Q 앞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스스로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동료가 안전 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안전불감증을 해소시켜준다면 중대 재해 없는 현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2 경기권

- 경기 32 수원·화성 세계인의 날 축제 현장
- 안양 36 의왕 어린이 철도 축제 안전문화 캠페인
- 안산 38 안산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 안전문화 캠페인

- 성남 40 2025 물류창고 안전일터 조성의 날
- 평택 42 평택 안성시 내리 다문화 축제



다문화 속에서 피어난 안전문화



수원·화성 세계인의 날 축제 현장

5월 중순, 초여름의 문턱에서 수원과 화성에서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가 펼쳐졌다. ‘제18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열린 다문화축제는 외국인 노동자, 가족,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이었다. 두 축제에서 특히 주목받은 것은 경기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 운영한 체험형 안전문화 부스였다. 경기지역은 전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다문화 축제에서의 안전문화 체험부스는 산재에 특히 취약한 계층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1. 4대 금지 캠페인 현수막과 함께 2. 베트남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밝은 미소 3.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4대 금지 캠페인 현수막(영문)

수원, “문화와 안전이 만난 날”

5월 17일 토요일,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는 아침 일찍부터 각국의 전통 의상을 입은 외국인들과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축제 특유의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안전단의 안전문화 부스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을 전파하는 데 집중했다. 참가자들은 ‘떨어짐’, ‘끼임’, ‘충돌’ 등 산업재해 주요 유형을 퍼즐로 맞춰보며 사고 유형을 직관적으로 이해했고, 이어진 VR 체험에서는 이륜차 배달종사자 사고 장면을 운전자의 시점으로 실감나게 경험했다. 체험을 마친 이들의 얼굴에는 진지함과 놀라움이 동시에 나타났다. 특히 퍼즐 맞추기에는 어린 세대에게도 안전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부스 한쪽에는 ‘4대 금지 캠페인’ 내용을 담은 X-배너가 눈에 띄었다. 1. 안전장치 해제 금지, 2.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3.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4. 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이처럼 간결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외국인 참가자들에게도 명확히 전달되었다. 현장에는 외국인



4.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어린이 합창단 공연
5. VR 체험에 몰두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
6. 위험 요인 퍼즐 맞추기에 집중하는 어린이들

지역리더 8명이 통역과 캠페인 안내를 맡아,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쉽게 안전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시도는 2025년에 처음 도입된 방식으로, 더욱 뜻깊은 의미를 지닌다. 참여자들에게는 안전문화 슬로건이 인쇄된 기념품이 제공되었고, 많은 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부스를 떠났다.

행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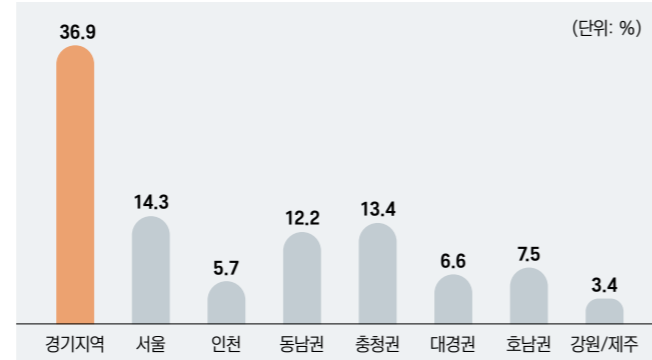
- **일시 및 장소** : 2025.5.17.(토) 11:00~17:00
수원 제1야외음악당
- **내용** : 위험 요인 퍼즐 맞추기, 찾아가는 VR 운영, 4대 금지 캠페인 X-배너 비치, 안전문화 슬로건 삽입 마중물 지급 등



화성, “안전이라는 공통 언어”

이튿날인 5월 18일 일요일, 화성 도원체육공원에 서도 ‘세계인의 날’을 기념한 다문화축제가 열렸다. 경기 안실단은 이곳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중심의 현장 밀착형 산업안전 교육을 제공했다. VR 체험 부스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사례가 생생하게 구현됐다. 특히 배달 오토바이 사고를 기반으로 구성된 시뮬레이션은 현실감이 뛰어나 체험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많은 참가자들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에 놀랐다”며,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안전모 착용 체험부스도 큰 인기를 끌었다. 관람객들은 실제 작업용 안전모를 착용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어린이들은 비누방울, 어른들은 치솔과 치약 등 위생용품을 기념품으로 받았다. 단순한 체험이지만, 안전장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수원과 화성 두 곳의 축제 현장에서 공단 경기 지역본부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제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실천 중심 콘텐츠를 선보였다.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안전’이라는 공통 언어는 이들을 하나로 엮었다. 그날 각자의 마음속에 새겨진 안전에 대한 감각과 인식은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

[그림] 전국 대비 지역별 외국인 노동자 비율



자료 출처 : 통계청,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2024. 5. 기준)



7. 안전모 착용 캠페인에 참가한 어린이들
8. 안전모 착용 체험. 안젤이 캐릭터와 기념 촬영
9.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VR 체험

행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5.5.18.(일) 11:00~17:00 화성 도원체육공원
- ➡ **내용** : 안전모 착용 체험, 위험 요인 퍼즐 맞추기, 찾아가는 VR 운영, 4대 금지 캠페인 현수막 비치, 안전문화 슬로건 삽입 마중물 지급 등

생생 Talk Talk! 인터뷰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센터장 **손영희**



행사를 잘 치르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Q 화성시에는 주로 어떤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나요?
화성시는 전국에서 이주 노동자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가장 많은 국적은 베트남이고, 그 외에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미얀마 출신의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어 산업안전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Q ‘세계인의 날’ 행사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행사는 2007년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문화적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죠. 단순히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편견을 줄여 나가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도록 기획되고 있습니다.

Q 경기 안실단 부스 운영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경기 안실단은 이 행사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 장벽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VR 체험교육과 안전모 착용 체험 등 체험형 안전문화캠페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VR 체험교육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상황을 가상현실로 체험하게 하여,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2025년에는 외국인 공동체 리더들이 통역과 안내 역할을 함으로써 더 많은 외국인들이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Q 이번 행사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외국인들에 대한 오해나 거리감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입니다. 자주 만나고 교류하다 보면 편견이 사라지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 스스로도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Q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한 직업 활동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이런 행사를 잘 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이라는 말을 항상 강조합니다. 외국인들은 문화 차이로 인해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반복 교육이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꾸준히 제공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외국인의 안전을 챙기는 지속 가능한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린이 축제에서 싹튼 안전의 씨앗



의왕 어린이 철도 축제 안전문화 캠페인

지난 5월 3일, 경기도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일원에서는 전국 유일의 철도 테마 축제인 '의왕 어린이 철도 축제'가 열렸다. 19회를 맞이한 이번 축제에는 2만여 명이 방문해 다양한 철도 체험과 공연을 즐겼고, 그 속에서 안전의 가치를 전하는 특별한 캠페인도 함께 펼쳐졌다.

산업안전보건을 주제로 한 이 캠페인은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생활 속 안전'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전했다.



1. 안전퀴즈를 풀며 안전수칙을 익히는 시민들 2. 직접 안전모를 착용해보는 어린이 3. VR안전체험교육을 통해 안전감수성을 높인다.

놀이 속에 스며든 안전 체험

캠페인은 안양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관계자 12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풍선, 키링, 미세먼지 마스크 등 '안전 마중물'을 배포하며 시기별 안전 수칙을 안내했고, VR안전체험관과 드론·안전보호구 전시·착용 부스, 안전퀴즈 및 안전다짐 메시지 작성 코너가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아이들은 직접 안전모를 착용하고 장비를 만져보며 '보는 안전'에서 '체험하는 안전'으로 나아갔고,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안전보건자료(OPS)를 살펴보며 가정에서의 안전습관까지 돌아보는 계기를 가졌다.

지역축제에서 피어난 안전문화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들이 주인공인 대규모 지역축제 현장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놀이와 공연 중심의 축제에 안전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즐겁지만 안전한 축제'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특히 철도 운행 원리를 배우는 자이로스코프 체험, '칙칙폭폭 기차여행' 등 철도 콘텐츠와 연계해 진행돼, 산업기반시설의 안전 역시 생활 속과 이어져 있음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풀어냈다.



4. 보안경, 안전모 등 다양한 안전보호구 전시

미래세대를 위한 안전감수성

안전문화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생활 속 습관이 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갖는다. 이번 의왕 어린이 철도 축제 안전문화 캠페인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체험과 놀이로 안전을 배우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산업인력의 안전감수성'을 기르는 데 기여했다. 작은 풍선 하나, VR 체험 한 번이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어린이들의 기억 속에 '안전은 생명을 지키는 기본'이라는 메시지로 남게 되었다.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5.5.3.(토) 09:00~18:00
왕송호수공원
- **내용** : 안전 마중물 배포(풍선·키링·마스크 등), VR안전체험관, 드론 및 안전보호구 전시·착용 부스, 안전퀴즈 및 안전다짐 메시지 작성, 안전보건자료(OPS) 배포

다름을 넘어 함께, 안전으로 이어진 하루



안산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 안전문화 캠페인

5월 17일, 다문화 도시 안산에서 열린 '안산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에 2025년에도 안산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 함께했다.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 힘을 모아, 축제를 찾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안전 지식을 전하며 따뜻한 시간을 나눴다.



1.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부스 앞에서 다 함께 하이팅 2. 참여자들의 안전다짐 전시 3. 근로자 건강 상담 Zone에서 상담받는 외국인 노동자
4. 언어 장벽을 넘어 모두 하나가 된 유익한 시간

작은 지구촌, 안산

경기도 안산에서는 현재 117여 개국에서 온 약 10만 명의 외국인이 내국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 가고 있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공존하는 이곳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문화 도시로 자리 잡았다. 안산에서는 매년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언어와 인종, 국적을 넘어 서로를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 들이고 화합하기 위한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 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에서 외국인들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내국인들은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서로를 한층 더 가까이 이해하게 된다.

지난 5월에 열린 이번 축제에도 2,500여 명의 내·외국인 주민들이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현장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체험존과 먹거리 부스, 신나는 공연 무대가 마련되어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했다. 또한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홍보 부스도 운영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전했다.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찾는 행사인 만큼, 안전보건공단도 수년째 꾸준히 참여해 왔다. 언어 장벽으로 인해 산업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세계인의 축제 속 안전문화 한마당

이번 축제를 위해 안산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 힘을 합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무엇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전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부스에서는 안전 보호구를 직접 보고 착용하는 체험과, 여러 나라 언어로 제작된 안전사고 예방 VR 영상을 통해 부담 없이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물론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즐겁게 참여했고, 안전문화 메시지가 담긴 풍선을 받으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제작된 안전보건 리플렛과 방문객들을 위한 키링, 손 세정제 같은 작은 선물들도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평소 건강 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자 건강상담 zone'도 운영해,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을 제공했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장은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 앞장서서 이들의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5.5.17.(토) 14:00~19:00
안산 화랑유원지 대공연장
- **내용** : 행사 연계 안전문화 캠페인 부스 운영



물류창고 현장에서 확인한 안전의 힘



2025 물류창고 안전일터 조성의 날

4월 15일, 경기도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에서는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일터 조성의 날' 캠페인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경기동부 근로자건강센터,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경기동부 물류업안전보건협의회, 지방자치단체 등 성남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의 다양한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한 대규모 행사였다.



1. 회사 간의 안전관리 아이디어 교환 2. 산업재해 원인 설문조사 3. 안전수칙을 담은 OPS 및 안전장갑 배포 4.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안전문화 실천을 다짐

합동 점검과 현장 중심 캠페인

행사에서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과 지사장을 비롯해 약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물류창고 주요 설비에 대한 순회 점검이 이뤄졌다. 지게차, 컨베이어벨트 등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위험 설비들이 집중 관리 대상이었다. 동시에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도 병행됐다. 위험 표지판 부착, 미세먼지 3대 안전수칙과 화재예방 수칙이 담긴 OPS(One Page Sheet) 배포, 안전조끼 착용을 통한 '원팀' 결속감 부여, 산업재해 원인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 의식이 현장 노동자들에게 전달됐다. 캠페인의 효과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드러났다. 작업자들에게 지급된 안전장갑과 OPS는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작업 중에도 손에 쥐고 볼 수 있는 '실천 도구'가 되었다. 경기동부 근로자건강센터가 마련한 혈압·혈당 검진, 근골격계 테이핑, 심리 상담 서비스는 물류업 특유의 신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맞춤형 대응을 제공하며 노동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교육과 포럼, 지식을 통한 안전 확산

오후에는 교육과 포럼이 이어졌다. 김병길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부장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게차 충돌 사고와 컨베이어벨트 끼임사고, 그리고 대형 물류창고 화재사고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예방 수칙을 강조했다. 교육에는 120여 명이 참석해 실제 사고 사례에 기반한 생생한 학습 기회를 가졌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경기동부 물류업안전보건협의회

회원사들이 모여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물류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나눴다. 15명이 참여한 자리에서는 제도적 규제와 현장 실천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현실적인 의견이 제시되었다.

안전은 협력 속에서 완성된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일회성 점검이 아니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경기동부 근로자건강센터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함께 참여한 '원팀(One Team)' 협력 모델을 통해, 안전이 특정기관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의 과제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또한 언론 보도를 통한 2차 확산까지 이어지며 행사장의 메시지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효과도 거뒀다. 결국 '물류창고 안전일터 조성의 날'은 산업현장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동시에, 다양한 주체들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안전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성과가 된 현장이었다. 현장에서 배포된 OPS 한 장, 안전장갑 한 장이 쌓여 더 안전한 산업현장을 여는 작은 출발점이 되었다.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5.4.15.(화) 11:00~15:00
경기도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 내용 : 고위험 설비 합동 점검, 안전의식 확산 캠페인, OPS-안전장갑 배포, 건강검진-심리상담, 지게차-온열질환 예방교육(120명), 안전문화 활성화 포럼(15명)

우리 모두 함께하는 체험의 장



평택 안성시 내리 다문화 축제

10월 18일 대덕면 내리 25호 공원에서 '2025 내리 다문화 축제'가 개최되었다. 대덕면에 외국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원 거주민과 소통 및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행사는 안성시 대덕면 주최로 진행되었고, 평택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또한 체험 부스를 세워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를 통해 사람들은 각자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었다. 평택 안실단 역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더 자세히 알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



1. 안전 슬로건을 들고 있는 사람들 2. VR 체험을 하기 위해 줄을 선 아이들 3. VR 체험으로 안전사고 예방법을 배우는 사람들 4. 내리 다문화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

서로의 문화를 나누다

이날 행사는 풍성한 축제의 장이었다. 다문화 및 지역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하여 화합의 장을 이루었다. 행사는 광덕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솜사탕 양상블 색소폰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뒤이어 펼쳐진 동요와 율동은 문화 화합을 상징하는 공연이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 함께 돌봄센터 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집단이 참가해 행사에 흥겨움을 더했다. 동시에 '한국적'인 문화와 색채를 잊지 않았다. 중앙대학교의 밴드 공연, 어울 태권도의 태권도 시범 등이 펼쳐지자 참여자들이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다양한 체험 부스를 즐길 수 있었다. 행복마을관리소, 대덕면 주민자치회 등 다양한 단체에서 체험 부스를 주관했다.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은 것은 한국 음식 체험 부스였다. 대덕면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한 부스로, 한입에 먹을 수 있는 소떡소떡과 대덕면의 특산물인 배를 이용한 음료를 먹고 마실 수 있었다. 소시지와 쫄깃한 떡, 그리고 케첩의 조화에 많은 외국인 참여자들이 소떡소떡에 열광했다. 한국인 참여자들은 러시아 등 세계 음식 및 문화 체험에 높은 호응을 보였다. 참여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상호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5.10.18.(토) 대덕면 내리 25호 공원
- 내용 : 안전문화홍보 부스 설치·운영 및 "찾아가는 VR" 활용한 체험교육 진행

생생한 체험으로 배우는 안전사고 예방법

한편 평택 안실단에서는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안전 슬로건으로는 '5대 중대재해 예방 12대 핵심 안전수칙 준수'라는 문구를 내세웠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및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생생한 VR 체험을 제공했다.

VR 체험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 것이다. 행사 당일, 많은 외국인 노동자와 시민이 VR 체험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너도나도 하겠다며 길게 줄을 설 정도였다.

VR 체험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기념품이 지급됐다. 화재 예방 스티커, 접이식 장바구니, 소독 티슈 등, 실생활에 유용한 동시에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는 기념품이었다. 참여자들은 "안전사고는 나와 관련 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다. 그러나 VR 체험을 통해 언제든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아직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생생한 영상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법을 제대로 알 수 있었다.

한 외국인 노동자는 "영상에서 배운 예방법을 잘 기억한 뒤 실천하도록 하겠다."며 다짐을 밝혔다. 이날 홍보부스는 참여자로 북적이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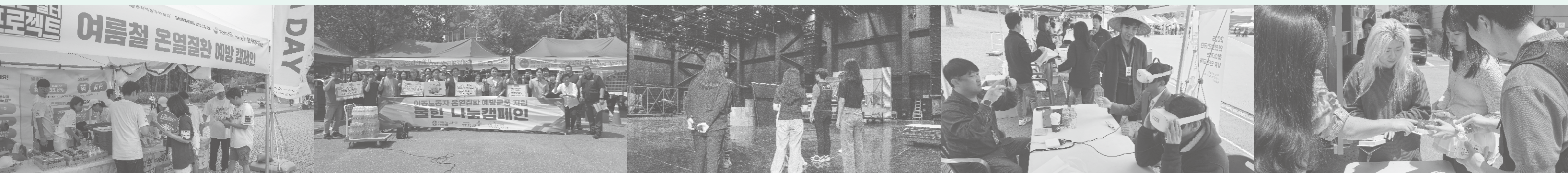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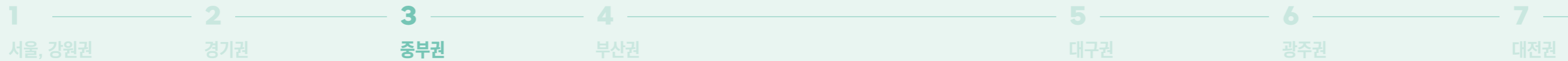
3 중부권

인천 46 인천 SSG랜더스필드 대국민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부천 50 배달 라이더 대상 온열질환 예방 합동 캠페인

의정부 52 포천 세계인의 날 글로벌 페스티벌 산재예방 캠페인

고양·파주 54 “안전 한 잔” 커피차 캠페인



경기장 너머 안방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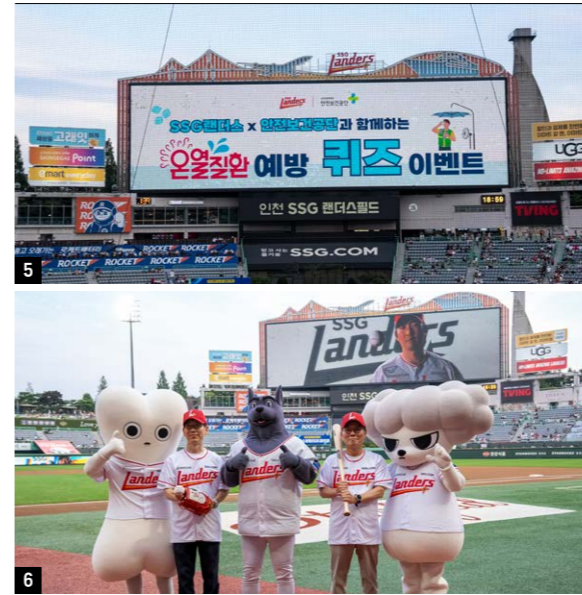


인천 SSG랜더스필드 대국민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7월 31일, '대국민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이 인천 SSG랜더스 필드에서 열렸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가운데,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캠페인은 사전에 SNS를 통해 일정을 홍보하여 다수 시민의 참여를 유도했다. 경기 2시간 전부터 캠페인 시작을 기다리는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한 덕분에 행사를 준비하는 안전문화 실천 추진단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이어 선수단 버스를 마중하기 위해 일찌감치 경기장을 찾은 시민들까지 합세하며 랜더스 필드 1번 출구(프론티어 스퀘어)는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 기다리는 관중들로 가득 찼다.



1. SSG랜더스필드에서 진행된 '대국민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2. 스트라이크존 이벤트 3. 캠페인 참여자의 경품 추첨 4. 온열질환 예방 관련 설문지 작성



5. 메인 전광판을 통해 진행된 '온열질환 예방 퀴즈 이벤트'
6. 시구시타 전 마스코트들과의 기념사진 촬영

경기장을 가득 채운 메시지, 중계화면 타고 전국으로

경기 시작에 즈음하여 야구장 밖 캠페인을 마무리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구장 내부로 자리를 옮겼다. 마스코트의 안내에 따라 마운드와 타석으로 각각 이동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청장과 동서식품 제조부 사장의 시구시타 행사와 함께 경기가 시작됐다. 관중석 입구마다 캠페인 인쇄물을 설치했고 외야석에는 '건강한 여름을 위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현수막을 설치해 경기를 시청하는 전국 야구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닝 간에는 온열질환을 주제로 한 전광판 퀴즈 이벤트를 마련해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경품을 제공했다.

브라운관을 통해서도 캠페인을 만날 수 있었다. 중계도중 가상광고를 송출하고 해설진이 온열질환 예방과 관련해 멘트하는 등 경기 내내 캠페인 메시지가 전달되게 했다. 프로야구 매거진 프로그램인 '아이러브 베이스볼'은 본 캠페인 관련 멘트를 클로징에 활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경기장에서 전달된 메시지가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나아가 온라인으로 확산하는 성과를 거두며 본 캠페인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랜디, 푸리, 배티와 함께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참여자들은 안전보건공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온열질환 예방조치' 영상 댓글작성을 인증하는 것으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어 '온열질환 예방'과 관련한 설문지 작성을 통해 온열질환에 대한 인식도 조사가 이뤄졌고 슬링샷으로 과녁을 맞추는 스트라이크존 이벤트로 체험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참여자들은 스트라이크존 점수에 따라 코샤데이 보냉주머니, 쿨링 물티슈, 부채, 음료 등 사은품을 수령했고, 현장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캠페인이 한창인 오후 5시 즈음에는 SSG랜더스의 마스코트인 랜디, 푸리, 배티가 행사장을 찾아 이목을 집중시켰다. 마스코트들은 안실단원들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고 참여자들과 소통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5.7.31.(목) 16:30
경기종료 시 인천 SSG랜더스필드
- 내용 : 프로야구 현장 및 방송 콘텐츠를 통한 온열질환 예방 홍보

동서식품 팀장 **허정식**

“온열질환 예방,
작은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Q 야구장 캠페인 참여 소감은?

이전에도 안실단 소속으로써 캠페인을 함께하곤 했습니다. 낮익은 얼굴도 있어 반갑습니다. 오늘 인천지역 기온이 상승해서 폭염경보가 발효되었는데,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이 시기 적절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경기장에 오시는 시민분들에게 행사 취지를 열심히 설명해드렸으니, 오늘 캠페인 내용을 항상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Q 사업장에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활동이 있을까요?

우리 동서식품은 부평, 창원, 진천에 공장이 있고 각 지역 거점에 물류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외 근무자가 많다보니 온열질환 예방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소속이 아닌 협력업체 노동자분들에게도 예의를 두지 않습니다.

Q 오늘 캠페인 주제인 ‘온열질환 예방’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협력업체 노동자 한 분이 어느날 저한테 오시더니, 작년보다 작업환경이 쾌적해져서 좋다, 여름에는 냉온수기가 설치돼서 수월하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직원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사소한 변화를 알아봐 주시니 고마운 마음도 듭니다.

Q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온열질환은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평소보다 체온이 높아지거나 땀이 많이 흐르는 경우, 어지러움과 메스꺼움, 근육경련, 의식 혼미 등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주세요. 무엇보다 좋은 건 예방이겠죠? 다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 실천하셔서 안전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삼성바이오 프로 **정찬연**

“온열질환 예방,
사업장 너머 전국민에게”



Q 오늘 행사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던 차에, 같은 주제의 캠페인을 범국민 대상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캠페인 진행하면서 안전보건공단 유튜브 채널 구독을 권하고 설문조사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온열질환 예방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Q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에서 특히 신경쓰는 부분이 있다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업장 온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모든 작업인원에게 주의 문자를 발송하기도 합니다. 외부 작업을 담당하는 인원들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비교적 기온이 낮은 시간에 업무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쿨링패드와 같은 온열질환 예방 키트를 배포해서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시원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온열질환 예방과 관련한 업무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2023년부터 매년 고용노동부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통해 사내 협력업체에 온열질환 홍보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도 협력업체와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공유하고 온열질환 예방 키트를 나눠줬는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를 착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안전 업무 수행 담당자로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것임을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Q 캠페인에 참여한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캠페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5대 기본수칙 꼭 준수하셔서 이번 여름 무더위를 훌런처럼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만드는 안전한 배달 문화



배달 라이더 온열질환 예방 합동 캠페인

6월 17일, 부천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식탁에 음식을 신속하게 전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이동(배달)노동자들을 위한 안전 캠페인이 열렸다. 이번 캠페인은 온열질환 예방은 물론, 이륜차 안전 점검과 교통사고 예방까지 함께 챙긴 알찬 자리였다.



1. 배달 라이더들에게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배포 2.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공동 캠페인 배너와 함께 3. 폭염 대비 온열질환에 대한 안전 의식을 높인 자리

배달 강국의 그늘, 노동자의 위험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음식을 배달받을 수 있는 '배달 강국'의 이면에는, 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배달 노동자들의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를 이륜차로 달리며 장시간 고온에 노출된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수칙인 '물·그늘·휴식' 중에서도,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기 어려운 노동 환경도 이들을 더욱 위험에 몰아넣는다. 대부분의 배달노동자는 플랫폼 노동자로, 배달 건수가 곧 소득으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신속한 배달을 원하는 고객들의 요구 속에서 교통사고 위험에 자주 노출될 뿐 아니라, 노동의 가장 중요한 도구인 이륜차 관리 또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근로 환경을 위해서는 구조적 개선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6월 안전일터 조성의 날을 맞아 열린 이번 캠페인은 이러한 배달 노동자들의 현실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 당장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자리였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과 부천시, 민주노총,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 많은 협력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았다.

라이더들의 안전을 지키는 작은 심포

부천소방서 인근 공영주차장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사전 신청한 배달노동자 120명을 대상으로 이륜차

제동장치와 배터리 등 필수 안전점검이 이뤄졌고, 엔진 오일, 전구, 에어클리너 필터 등 주요 소모품도 무상으로 교체해 주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배달 노동자는 "장마철에는 도로가 미끄럽고 시야도 안 좋아 사고 위험이 크다"며 "무상 점검과 부품 교체 덕분에 마음이 놓인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배달노동자들에게는 시원한 얼음물과 수분보충제, 쿨토시 등 온열질환 예방물품도 전달됐다.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온열질환예방물품지원 쿨한 나눔 캠페인'에 나선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은 "기댈 곳 없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울타리를 만들어 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캠페인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히 물품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온열질환 예방 지침 안내와 안전운전,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당부도 함께 이뤄졌다. 이를 통해 지역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재해 예방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와 공공기관, 노동자 권익보호 단체, 플랫폼 운영사가 힘을 합쳐 이러한 행사를 늘리고, 구조적 개선까지 이어 간다면, 비로소 노동자와 소비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배달 강국'이 될 것이다.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5.6.17.(화) 14:00~16:00
부천소방서 인근 공영주차장
- 내용 : 배달 라이더 온열질환 예방 합동 캠페인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만든 '안전한 일터'

포천 세계인의 날 글로벌 페스티벌 산재예방 캠페인

10월 26일, 경기도 포천 대진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포천 세계인의 날 글로벌 페스티벌' 현장.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세계 음식 부스 사이로, 한쪽에서는 '안전한 일터'를 위한 뜻깊은 캠페인이 펼쳐졌다. 의정부 안실단은 외국인 노동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1. 많은 이들에게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알린 산재예방 캠페인



2. VR 장비를 활용해 재해사례를 체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3. 다양한 국적의 시민들이 함께한 '열린 안전문화' 현장

안전체험으로 배우는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 부스에서는 VR(가상현실) 장비를 활용해 건설업·제조업·서비스업 등 업종별 재해사례를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가상공간 속 위험요소를 직접 경험하며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의정부 안실단은 5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담은 OPS 리플렛을 배포하고, 현수막과 배너를 통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다.

건강상담으로 이어진 안전문화

경기북부근로자건강센터는 현장에서 인바디 측정, 악력 테스트, 테이핑 처치 등 건강증진 상담을 운영하며 노동자들의 피로 누적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었다. 언어 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참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국어 안내문도 함께 제공했다.

축제 속의 안전, 모두의 약속

이번 캠페인은 포천 지역의 대표 국제 축제와 연계하여 진행된 만큼, 다양한 국적의 시민이 함께 참여한 '열린 안전문화'의 현장이었다.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 안실단은 앞으로도 지역축제, 산업단지 행사 등 생활 속 현장을 중심으로 접근성 높은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5.10.26.(일) 10:00~18:00
대진대학교 운동장
- **내용** : VR체험을 통한 재해사례 및 예방 교육, 5대 중대재해 예방 12대 핵심 안전수칙 OPS 배포, 외국인 노동자 건강상담 및 테이핑 처치

K-콘텐츠 제작현장의 안전의식 제고



“안전 한 잔” 커피차 캠페인

K-팝, K-드라마를 비롯한 K-콘텐츠가 세계적 인기를 구가함에 따라 콘텐츠 제작 현장이 연중무휴 열기를 띠고 있는데,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에 걸맞도록 제작 일선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23년, 관내에서 촬영 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전국의 촬영·공연장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방송 제작 현장에 산재한 위험 요소를 자각하고,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1. 오상진, 김소영 아나운서와 함께한 캠페인 단체사진 촬영



2, 3, 4. CJ ENM 일산제작센터를 견학하며 점검

CJ ENM과 함께하는 제작 현장 안전 캠페인

지난 6월 19일 11시, 고양파주 안실단은 CJ ENM 일산제작센터에서 ‘안전 한 잔’ 커피차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쳤다. K-콘텐츠의 세계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제작 현장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안전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자발적 안전보건 활동 참여를 이끌어내고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본 캠페인을 기획했다.

본격적인 캠페인에 앞서 고양파주 안실단원들은 CJ ENM 안전관리팀의 인솔하에 일산 제작센터 곳곳을 견학했다. 설치·철거 작업이 한창인 세트장과 창고 등을 둘러보았고 잠재적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꼼꼼히 점검했다. 현장 관계자들과는 구체적인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나누며, 실질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러한 사전 준비를 통해 진행자들은 캠페인에서 전달할 메시지를 더욱 명확하고 구체화할 수 있었다.

관내외 방송·공연 현장 안전사고 발생 사례

22년 7월	23년 12월	24년 7월	24년 12월
싸이 '흠뻑쇼' 무대 철거 작업하던 외국인 노동자 추락, 사망	파주 세트장 천장판넬 작업자 추락, 사망	페기 구 '보일러룸' 서울 공연 압사 위험으로 공연 중단	넷플릭스 드라마 '동궁' 세트장 화재로 전소



5. 고양지청 캠페인 진행자들의 단체사진 촬영 6. CJ ENM 안전관리1팀 7. 커피차 캠페인에 사용된 배너와 컵홀더 8. 커피차를 찾은 방송 스태프들 9. 가수 이지혜의 캠페인 참여 인증샷

‘안전 한 잔’ 성원 더불어 안전의식 UP

커피차와 현수막, 엑스배너, 액자 등이 준비된 11시, 캠페인이 시작됐다. 커피차 방문 소식이 전해지자 촬영이 한창이던 스튜디오에서 음료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고양파주 안실단원들은 캠페인에 참여한 이들에게 제작 현장의 안전의식 제고를 강조했다. 아울러 여름철 발생하는 온열질환 예방 OPS 등 홍보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컵홀더에 인쇄된 재치 있는 유행어 덕분에 특히 2030 젊은 참여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특별한 손님들도 눈에 띄었다. 이날 촬영을 진행한 ‘프리한 닥터’팀에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오상진, 김소영씨와 가수 이지혜씨가 직접 커피차를 찾은 것. 이들은 행사 진행자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인증샷을 남기면서 본 캠페인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커피차 캠페인의 확대와 현장 안전의식 제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날 행사를 계기로 CJ ENM은 하도급 용역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작업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안전의식 제고 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일산 외 제작센터에도 관련 캠페인을 확대 실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14시까지 진행된 이날 캠페인은 150여 명의 현장 노동자들과 방송인, 일반 시민들이 방문하며 성료했다.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5.6.19.(목) 11:00~14:00
CJ ENM 일산제작센터
- **내용** : K-콘텐츠 제작 현장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커피차 캠페인

생생 Talk Talk! 인터뷰

CJ ENM 안전관리 1팀 우태수

Q 오늘 행사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고양파주 안실단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더위가 시작될 무렵에 감사하게도 커피차를 활용한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하셨고,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분들에게도 안전의식을 자연스럽게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제안을 해주신 것이 우리 일의 중요성을 인정받는 것 같아서, 또 이를 계기로 현장의 안전의식이 한층 더 성숙해질 것 같아서 기쁩니다.

Q 안전관리팀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회사는 영화, 드라마, 예능... 거의 모든 분야의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전관리팀은 세트의 설치·철거부터 관객이 동원되는 현장의 안전관리, 협력사 스태프들의 안전 교육까지 제작 현장의 전반적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촬영 현장에 식용 포도당 이라든지 이동식 냉장고를 지원하면서 온열질환에 대비하기도 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무대를 짓고 철거하는 것인데, 무거운 자재를 다루고 위험한 장비도 많다 보니 안전관리팀에서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습니다.

Q 향후 자체 캠페인도 실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캠페인을 계기로 여기 일산 제작현장 뿐만 아니라 상암, 파주 등 제작현장에도 캠페인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내 스튜디오는 물론 야외 제작 현장에도 신경을 더 많이 쓰겠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대탈출 시즌4’ 촬영 현장에 분식차를 보낸 적이 있는만큼, 계절별로 주제와 방법을 달리해서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오늘 행사에 도움 주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연락 주셨던 안전보건공단에 감사드립니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방문한 고양파주 안실단 관계자 분들과 현장에서 상주하며 원활한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시설팀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바쁜 촬영 일정 쪼개서 참여해주신 ‘프리한 닥터’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감사인사 전합니다.

Q 끝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TV로 송출되는 장면들을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는 것은 뒤에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 덕분입니다. 화려한 액션장면은 물론, 스튜디오 촬영 현장에서도 안전 관리자분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콘텐츠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무대 뒤에서 안전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직원들의 노력도 가끔 떠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보람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방송 안전관리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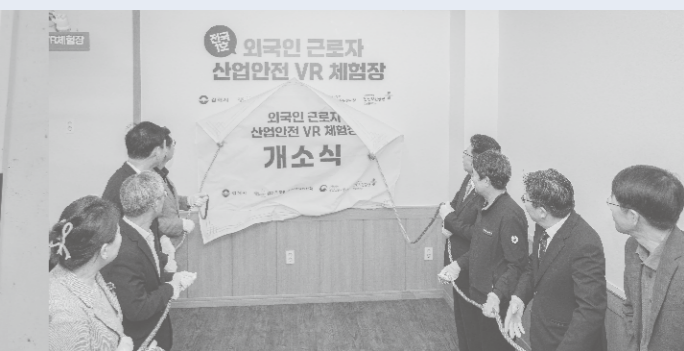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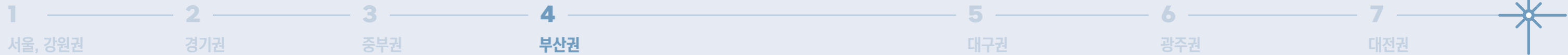
“K-콘텐츠 제작의 숨은 공로자, 무대 뒤의 안전지킴이”



4 부산권

- 부산** 60 수리조선업 보호구 관리 협약식 및 현장점검의 날
- 창원** 62 (주)케이조선 올 세이프 데이
- 진주** 64 대중소기업 안전문화 공유 캠페인

- 통영** 66 외국인 노동자 맞춤형 위험표지 제작·배포
- 울산** 68 2025 대표 안전메시지 활용 안전행동 챌린지
- 양산** 70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VR체험교육 확산



수리조선업 안전문화, 협력으로 다시 세우다



수리조선업 보호구 관리 협약식 및 현장점검의 날

부산 안실단은 3월 11일 사하구 오리엔트조선에서 '수리조선업 보호구 관리 협약식'과 '현장점검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수리조선소의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도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안전모와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통해 안전문화를 뿌리내리는데 목적을 두고 마련되었다.



1. 협약식에서 개인 보호구를 증정받은 수리조선소 관계자들 2. 협약식 후 안전문화 확산을 다짐하는 관계자들 3. 사하구에서 실시된 현장 안전 캠페인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안전 캠페인

부산 안실단은 협약식에 앞서 영도구와 사하구 일대 수리조선소를 직접 방문해 '사고사망예방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3월 7일 영도구에서는 선진조선을 비롯한 1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조선센터·안전문화팀 등 27명이 참여해 보호구를 배포하고, 화기 작업 등 중대사고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 3월 11일 사하구에서도 오리엔트조선 등 9개 사업장을 방문해 보호구 착용과 안전수칙 준수를 독려했다. 캠페인 종료 후에는 조선소 외부에 현수막을 게시해 주민·노동자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2월 기장지역 '별장형 콘도 신축공사' 화재 사고(6명 사망·27명 부상)를 계기로 화기작업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이번 캠페인은 지역 전체의 안전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보호구 증정 및 관리 협약으로 안전문화 정착 추진

협약식은 3월 11일 오후 2시 오리엔트조선 7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부산고용노동청장과 안전보건공단 본부장, 사하구 소재 수리조선소 관계자 등 총 32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 안실단은 사업장별로 안전모 20개, 안전대 10개를 제공하고, 제공된 보호구의 착용·보관·관리 원칙을 명문화한 관리 협약서를 공동 작성했다. 영도구 내 15개 사업장에는 패트를 점검과 병행해 현장에서 보호구가 즉시 전달되었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보호구 배포를 넘어, 사업장 스스로 보호구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노동자가 실제로 보호구를 착용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

부산고용노동청장은 "부산 지역 수리조선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호구 착용 등 기본 안전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장 역시 "제공된 보호구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체계가 함께 자리 잡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해 조선업 재해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 영도구에서 실시된 현장 안전 캠페인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5.3.7.(영도구), 3.11.(사하구) 영도구·사하구 소재 수리조선소 일대 / 오리엔트조선 회의실
- 내용 : 사고사망예방 캠페인, 보호구 배포, 보호구 착용 독려 및 현장 점검

오직 '안전'에 몰두하는 하루



(주)케이조선

올 세이프 데이(All Safe Day)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와 국제 해사기구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국내 조선업계는 실적과 수주 모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케이조선과 함께한 이번 캠페인은 조선업 현장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자리였다.



1.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VR 안전보건 교육 2. 작업 현장에서 함께 다진 '안전'을 향한 결의 3. 지난 4월 발생한 사고개요와 후속조치 점검 회의 4. 안전한 작업환경에 대한 꼼꼼한 점검

호황기에 필요한 건 더 단단한 안전망

창원 안실단은 창원지역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협의체와 함께 (주)케이조선에서 '올 세이프 데이' 행사를 가졌다. 올 세이프 데이는 안전보건 캠페인과 합동점검, 교육을 하루에 집중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전 임직원이 안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하나 되는 자리다.

최근 조선업이 호황을 맞으며 일감이 늘어나는 만큼, 중대재해 예방에도 더욱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주)케이조선에서는 건조 중이던 선박의 선박 블록이 전도되면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케이조선과 창원 안실단은 이를 간과하지 않고, 더 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한편 과거 불황기에 조선업을 떠난 숙련공들의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는 현황을 고려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 역시 이번 행사의 중요한 목표였다.

모두를 위한 안전한 조선업 생태계로

이날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과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장, (주)케이조선 조선소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관

계자들은 먼저 지난 4월에 발생한 사고개요와 후속조치를 꼼꼼히 검토하고, 올 세이프 데이의 취지와 안전 의식 고취의 필요성을 공유하며 의지를 다졌다.

이어 현장을 방문해 근로 여건과 안전보건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위험 장소에 한국어와 외국인 노동자의 주요 국적 언어로 된 위험표지를 부착했다.

오후 1시부터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VR 안전보건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은 언어별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화재작업재해, 추락재해, 밀폐공간 질식재해와 화학물질 취급작업의 급성중독 예방을 다룬 실감나는 VR영상을 통해 학습이 이뤄졌다. 이날 교육에는 베트남 국적 노동자 50명과 우즈베키스탄 국적 노동자 78명이 참여했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은 "경상남도를 움직이는 경제의 큰 축, 조선업에 대한 안전보건 활동은 경상남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고,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장은 "노동부와 공단은 조선업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조선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조선업 현장의 안전한 내일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5.5.14.(수) 10:00~16:00 (주)케이조선 일원
- 내용 : 안전문화 확산활동 부스 운영

안전한 일터 만들기, 몸소 체험으로 시작



대중소기업 안전문화 공유 캠페인

진주 안실단은 지난 3월 25일 한국남부발전 (주)하동 빛드림본부 안전문화 교육관에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단원, 태양광 설치업체 관계자, 사업장 관리·감독자 등 38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문화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대기업이 보유한 안전교육 및 홍보 인프라를 지역 내 중소기업과 공유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안전문화 동행과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 안전문화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의를 다짐



2,3.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프로그램 이수 현장

4.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강의를 경청하는 노동자들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5.3.25(화) 14:00~17:40
한국남부발전(주)하동빛드림본부
통합방재센터 영상교육장
- **내용** : 경남서부지역 민관공 안전담당자 등
한국남부발전(주)하동빛드림본부 안전교육장 견학
및 체험

서부경남 중대재해 예방 위한 안전체험 프로그램 실습

최근 서부경남 지역에서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안전의식 제고와 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진주지청은 한국남부발전과 협력하여 (주)하동빛드림본부 안전문화교육관에서 실질적인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교육은 3D 영상교육을 비롯해 안전보호구 착용법, 건설안전, 생활안전, 전기안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으며, 참가자들은 실제 상황을 가정한 체험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주요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안전대 추락 체험, 중량물 인양 체험, 전기안전 체험, 비계 및 A형 사다리 체험, 화재진압 및 비상대피 훈련,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교육 등이 진행되었으며, 약 90분간 실습 위주로 운영되었다.

“지속적인 안전문화 확산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앞장설 것”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은 “이번 안전문화 체험교육을 계기로 사업장에서 안전의식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회성 교육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이 곧 생명’이라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다. 진주지청은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업종별 맞춤형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다국어 스티커북으로 확산되는 안전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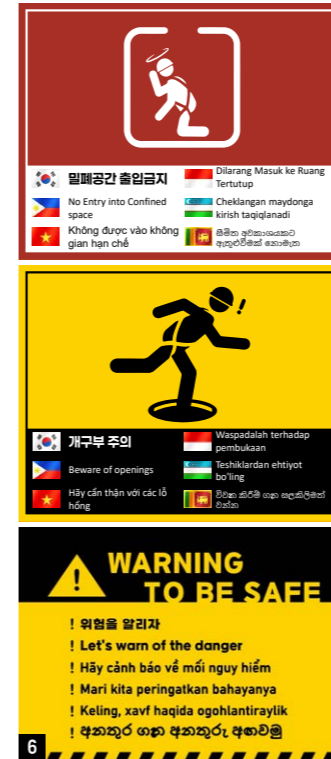


외국인 노동자 맞춤형 위험표지 제작·배포

통영 안실단은 외국인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다. 6월 12일부터 사업을 추진해 7월 초순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된 '위험표지 스티커북' 제작 사업이 그것이다. 이 스티커북은 한국어와 영어는 물론, 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우즈베키스탄어·스리랑카어 등 총 6개 언어로 제작돼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국어로 안전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1.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종사하는 사업장에 배포 2. 콘크리트 벽면에도 쉽게 떨어지지 않게 제작된 스티커 3, 4, 5. 안전수칙을 담은 스티커를 실제 현장에 부착



6. 스티커는 한국어, 영어 외에 6개 언어를 병기해 활용도를 높임

현장 맞춤형 안전메시지

스티커북에는 제조업·건설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주요 위험표지가 담겼다. 예를 들어 밀폐공간 출입금지, 지게차 작업반경 접근금지, 용접금지, 감전 주의, 끼임 주의 등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 상황을 직접적으로 알리는 표지가 포함돼 있다. 특히 콘크리트 벽면이나 기름때 묻은 철판에도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제작돼, 실제 현장에서 즉시 부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이 강화됐다.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용 방안

제작된 스티커북은 단순 배포에 그치지 않았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28개소)에 우선 제공돼,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도와 컨설팅 과정에서 활용됐다. 또한 '현장점검의 날' 및 '안전일터 조성의 날' 캠페인과 연계해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종사하는 산업단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며 배포됐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협력해 실적을 관리하고, 홍보 자료로 확산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안전문화 확산의 교두보

이번 사업은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산업현장의 안전문화를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공유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현장 노동자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예방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도구로 기능한다. 경남지역본부의 스티커북은 지역 산업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메시지를 생활화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개요

- 사업기간 : 2025.6.12.(목) 사업 시작~7월 초순 배포
- 제작언어 :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스리랑카어 (6개국어)
- 내용 : 업종별 9개 위험표지(밀폐공간 출입금지, 크레인 하부 통행금지 등)와 대표 안전메시지 수록

울산 노동자가 직접 전하는 '안전한 일터' 메시지



2025 대표 안전메시지 활용 안전행동 챌린지

지난 5월 19일부터 7월 4일까지 울산에서는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해 안전문화 확산에 나선 특별한 챌린지가 진행됐다. '안전한 일터, 모두의 행복'이라는 대표 슬로건을 주제로 열린 '안전행동 챌린지'는 일터에서의 안전 실천을 생활속 행동으로 연결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미지와 영상 두 개 부문으로 나뉘어 공모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였다.



노동자 스스로 안전을 표현하고 공유

참여자들은 개인 또는 회사 SNS에 해시태그 (#울산안전보건챌린지, #안전한일터모두의행복)를 달아 게시물을 올리고, QR코드를 통해 참여를 인증했다. 이미지 부문에서는 안전한 작업장과 동료애, 가족의 행복 등을 담은 포스터·사진·시 이미지 등이 다채롭게 접수됐고, 영상 부문에서는 30초 이내의 짧은 실천 메시지 숏폼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챌린지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노동자 스스로 안전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문화의 장이 됐다. 공모 기간 동안 총 125건이 접수되었다. 추첨을 통해 이미지 부문 참가자에게는 커피 상품권이, 영상 부문 참가자에게는 온누리상품권이 전달됐다.



미래지향적 안전문화 확산의 장

챌린지의 결과물은 교육 현장으로 이어진다. 우수 이미지와 영상은 모음집으로 제작돼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챌린지는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안전을 이야기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전은 모두의 행복"이라는 메시지가 SNS에서 사업장으로, 다시 지역사회로 확산되며, 울산의 안전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행사 개요

- 기간 : 공모 2025.5.19.(월)~7.4.(금)
결과발표 7.11.(금)
- 대상 : 울산지역 노동자
- 내용 : '안전한 일터, 모두의 행복' 이미지·영상 공모 (총 125건)

언어장벽 없는 VR교육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VR체험교육 확산

양산 안실단은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의 '언어장벽'이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관내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와 협업하여 VR을 활용한 체험교육장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VR체험교육을 확산하여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산업안전 VR체험장 개소식



2. 산업안전 VR체험장 현판 제막 3. 산업안전 VR체험장 개소식 관계자 단체 사진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 기존 안전 교육의 한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활성화하는 고용허가제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경남동부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김해시에는 26,000여 명(전국 5위 규모)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많은 이들이 오늘도 산업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터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들의 '언어장벽'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안전지식'을 습득하기에는 각 노동자의 한국어 이해 능력이 상이하여 교육 효과의 편차가 크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 산업안전 VR체험교육 인프라 구축

양산 안실단은 효율적인 교육효과 확산을 위해 관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가장 밀집한 김해시를 시작점으로 관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이하 '센터') 2개소와 VR체험교육장 구축을 위한 협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22일 김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 산업안전 VR체험교육장 개소식'이 열렸다. 곧 이어 9월에는 양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외국인 노동자 산업안전 VR체험교육장을 구축하여 관내 VR 체험교육 인프라를 완성했다.

VR체험교육 인프라 활용 외국인 노동자 대상 안전문화 확산

VR 체험 교육장은 센터 운영 시간 중 상시 운영되었으며, 센터 교육팀과 외국인 안전리더가 함께 교육을 운영하여 교육 효과를 높였다. 나아가, 양산 안실단은 구축한 VR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관내 외국인 대상 축제나 행사 등에서 찾아가는 VR체험 교육 부스를 운영했다. 특히, 산업인력공단 주관의 고용허가제 소수업종 체류지원 행사와 양산시 외국인 근로자 락(樂)페스티벌 등 관내 주요 외국인 행사와 축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VR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안실단은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방면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안전 VR체험교육 확산 추진 현황

- 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VR체험교육장 구축(6~7월)
- 센터 내 VR체험교육장 상시 운영(7월~)
- 밀양시 소수업종 종합체류지원 행사(7월)
- 양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VR체험교육장 구축(8~9월)
- 양산 외국인 근로자 락(樂)페스티벌 VR체험부스 운영(11월)
- 밀양시 소수업종 종합체류지원 행사(11월)

행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5.7.22.(화) 10:10~11:00
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 **내용** : 외국인 노동자 산업안전 VR체험교육장 개소식 및 시연회



4. 양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VR체험교육 운영
5. 7월 밀양 소수업종 종합체류지원행사
6. 양산 외국인 근로자 락페스티벌
7. 11월 밀양 소수업종 종합체류지원행사

생생 Talk Talk! 인터뷰

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교육팀장 신지윤

Q 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관내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사업장에서 겪는 고충을 상담하고, 통·번역, 병원진료, 한국어 교육, 법률지원 등 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산업안전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오늘 행사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 VR체험교육장이 설치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교육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체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존 집체 교육으로는 그 효과를 다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VR안전체험교육장은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상황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김해 외의 지방자치단체에도 체험교육장이 확대 설치될 길도 마련되고 있으니, 앞으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게 하는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Q VR체험교육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산업현장의 안전 수칙은 텍스트로 잘 정리되어 있지만, 특정 상황은 실제 겪기 전에는 인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흥미를 잃고 교육 자체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VR체험장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고소작업 중 추락, 기계 협착, 화재 등의 상황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해서 텍스트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체험함으로써 체득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언어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지만 앞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져서 내국인들도 해당 콘텐츠를 활용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향후 외국인 노동자 VR체험교육장 운영 방향이 궁금합니다.

현재 37가지의 VR콘텐츠를 활용해 상시 교육 중이며, 후속 공단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VR 콘텐츠 확대 및 최신화하여 센터 주관 외국인 축제 등 외국인 관련 행사에도 VR체험교육을 지속 지원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맞춤형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Q 끝으로 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무사히 귀가해야 합니다. 이번 VR체험 교육장은 그런 기본을 지키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많은 노동자분들이 이 공간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느끼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노동자에게 안전한 귀가를 약속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한 김해,
안전한 귀가를
약속하고
싶습니다.”



5 대구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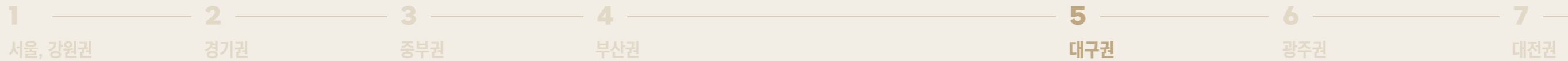
대구 76 안전문화포럼 with 현대자동차

포항 80 2025 포항철강마라톤 대회 안전문화 캠페인 현장

구미 84 구미 외국인 주민 문화축제 현장

영주 86 문경 찻사발축제 연계 캠페인

안동 88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현장의 안전문화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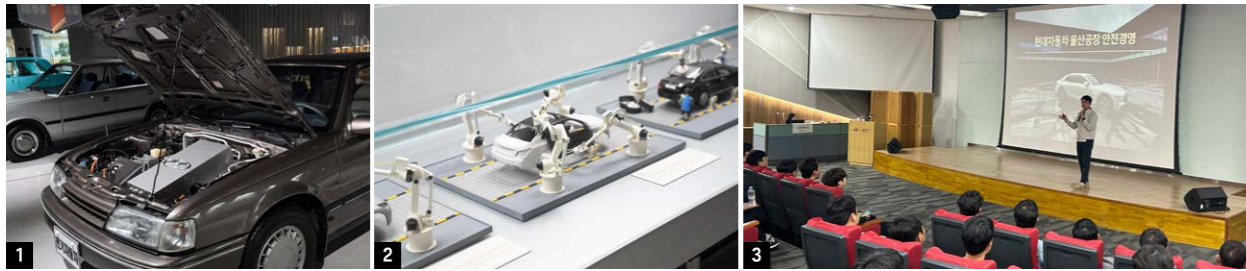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의 미래



안전문화포럼 with 현대자동차

2025년 7월 22일,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뜻깊은 자리가 열렸다. 바로 '안전문화포럼 with 현대자동차'다. 이번 행사는 자동차 산업의 안전보건 문화를 고도화하고,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함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대구지역 현대차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은 실제 생산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체험하고, 다양한 실천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1. 현대자동차문화회관 견학으로 시작된 일정 2. 각 공정별 안전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 청취 3. 현대자동차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표 4. 대구지역 안전관리자 40여 명이 참여한 실천 중심의 포럼

상생을 위한 새로운 시도

이날 포럼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협력사 스스로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대자동차는 단일 사업장의 안전을 넘어서, 협력사 전반의 안전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지속해오고 있다. 협력사 간에는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운 안전관리 기법과 사고 예방 사례를 공유하는 등 '수평적 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가장 주목할 만한 시간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의 안전관리체계를 직접 둘러보는 견학 프로그램이었다. 자동차가 조립되는 고밀도 생산 공간에서, 고위험 작업의 안전조치, 자동화 설비의 안전 연동 시스템, 그리고 작업자 보호를 위한 휴게 및 응급 대응 설비까지 세밀하게 구축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견학에 참여한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이 갖춘 안전 인프라와 조직적인 관리 체계를 직접 보고 나니, 우리 회사에서도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명확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장의 실천이 곧 조직문화라는 점에서, 포럼 참가자들에게는 단순한 이론이나 지침보다 훨씬 생생하고 설득력 있는 자극이 되었다.

함께 실천하는 안전문화

현대자동차는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사의 안전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 현장 컨설팅, 위험성

평가 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안전캠페인 공동 추진 등 '함께 실천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애써왔다. 또한 '울산 자동차 부품사 안전협의회'를 운영하며 분기별로 정보를 공유하고, 전국 단위의 상생포럼을 통해 협력업체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일련의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된 것으로, 특히 대구권 협력사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포럼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기술적 연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자발적 네트워크 형성을 논의하기도 했다.

'안전'이라는 키워드는 더 이상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작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해지는 지금, 안전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유해야 할 문화로 전환되고 있다.

이번 '안전문화포럼 with 현대자동차'는 그런 인식의 전환을 상징하는 자리였다. 자동차 산업의 허브인 울산에서 시작된 이 공감의 물결이, 전국 산업현장으로 퍼져나가기 기대한다. 안전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함께 실현하는 미래 가치다.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5.7.22.(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 **참석자** : 대구지역 현대차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40여 명
- **내용** :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표, 생산라인 안전관리체계 견학, 안전문화 실천 활동 공유 및 질의응답, 참석자 간 교류 및 네트워킹

현대자동차 안전팀 팀장 **김용민**

“상생의 안전문화,
자율관리에서 시작됩니다.”

Q ‘안전문화포럼 with 현대자동차’의 주요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번 포럼은 자동차 업종 간 안전문화를 공유하고, 협력사와 함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와의 상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안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통해 더 단단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Q 협력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오셨나요?

그동안 자격증 취득 지원, 안전보건 컨설팅, 합동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특히 ‘울산 자동차 부품사 안전협의회’를 통해 협력사와 분기별로 정부 정책,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실질적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Q 협력사에 가장 필요한 안전관리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스스로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요소를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실천적 접근이야말로 진정한 안전문화의 핵심입니다.

Q 공공기관과의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대차는 안전보건공단과 공동 캠페인과 정책 연계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활동, 위험 표지판 부착 캠페인, 메시지 홍보 등은 현장 중심의 캠페인으로, 협력사와의 신뢰 기반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Q 향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대구권역 외에도 타 지역 협력사와 지속적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가고자 합니다. 현장 중심의 상생협력 구조를 고도화하고, 자동차 산업 전체의 안전 수준을 함께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주)신영 안전보건팀 팀장, 책임매니저 **강승원**

“현장의 안전,
함께할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교육과 기술지원 또한 우리 회사의 안전수준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Q 회사 내부적으로 가장 강조하는 안전문화 요소는 무엇인가요?

‘작업 전 위험요인 확인’과 ‘기초 안전수칙 준수’를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고소작업이나 밀폐공간 등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체계를 갖추고, 노동자 참여형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협력관계가 귀사의 안전관리 개선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현대차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 내부의 미흡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리스크 기반 접근, 교육 콘텐츠 다양화, 스마트 시스템 도입 등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Q 안전관리 상 어려운 점과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중소기업은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함께할 수 있는 맞춤형 모델 제시와 기술적·제도적 지원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Q 향후 대기업과 협력사 간 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길 바라시나요?

청취 중심을 넘어, 기술교류, 위험성 평가 공유, 공동 캠페인처럼 실천형 활동이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실행해나가는 파트너십 기반의 안전문화가 뿌리 내리길 바랍니다.



Q 현대자동차 안전문화포럼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기대는 무엇이었나요?

현대차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앞서가는 기업으로, 이번 포럼은 그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또한 유사 업종의 여러 협력사들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실질적인 안전 개선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어 매우 유익했습니다.

Q 기업과의 협력 사례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요?

최근에는 현대차의 위험성 평가 기법을 벤치마킹해 우리 현장에 적용했고, 스마트 안전장비도 시범적으로 도입해



안전문화, 시민들 곁으로



2025 포항철강마라톤 대회 안전문화 캠페인 현장

제9회 포항철강마라톤 대회가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포항철강마라톤 대회는 '철강 도시' 포항을 알리고자 시작되었으며, 동호인은 물론이고 많은 시민이 참가하는 지역 내 대규모 행사로 꼽힌다.

6월 14일 토요일, 쏟아지는 비가 우려되었으나 날씨는 러너들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이렇듯 건강한 열기가 넘치는 현장에 포항 안실단이 추진한 안전문화 캠페인 부스가 설치되었다



1. '포항철강마라톤 대회' 안전문화 캠페인을 기념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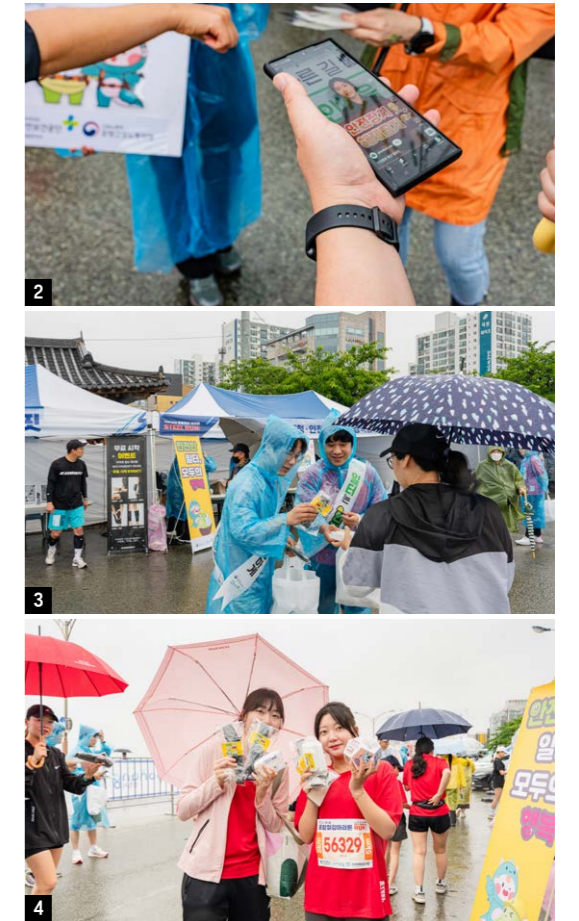
부담스러운 캠페인은 NO!

대회 참가자들의 집결 시각은 8시 20분. 그보다 앞서 7시에 집결지에 모인 포항 안실단원 30여 명은 부스 앞에 X-배너를 설치하고, 참가자들에게 나눠줄 물품을 정리하는 등 일찌감치 캠페인 준비를 마쳤다. 집결 시각 전에 참가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보이자, 직원들은 지체 없이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부스에서 가만히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안전문화 슬로건이 적힌 피켓과 물품이 가득 담긴 에코백을 들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갔다.

캠페인의 목적은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이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안전 의식 제고가 우선되어야 하기에 참가자들이 안전문화 슬로건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했다. 물품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것으로 선별하였으며, 총 4종의 물품에 '안전한 일터, 모두의 행복', '당신의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등 안전슬로건이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에게 나눠준 물품은 러닝벨트 3,000개, PP저금통 1,000개, 물티슈 500개, 판박이 200개였다. 인사를 나누거나 응원 의 말을 전하며 물품을 나눠주니, 참가자들도 거부감 없이 물품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슬로건을 확인하였다.

또, 캠페인을 위해 직접 제작하여 안전보건공단 유튜브에 게재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QR 코드를 피켓에 넣어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볼 수 있게 하였다. 영상에서는 챌린지를 하듯 한 사람씩 등장해 '안전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작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4대 금지 수칙을 외치기도 하고, 안전의식수준 확인 방법 등을 알려준다.



2.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영상 감상
3. 캠페인 물품 배부
4. 캠페인 물품을 받은 참가자들



5. 안젤이와 기념사진 촬영
6. 러닝벨트를 착용 중인 참가자들
7. 2025 포항철강마라톤 대회 시작

다시 한번 되새기는 ‘안전’

캠페인을 위해 준비한 물품 중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건 러닝 벨트였다. 마라톤 대회 맞춤으로 준비한 물품이었던 만큼 러닝 벨트를 받기 위해 사람들에게 물어 부스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 노동부와 공단의 대표 캐릭터가 그려진 판박이도 젊은 참가자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았다. 귀여운 캐릭터를 몸에 붙이니 축제에 온 기분이라며 즐거워했다. 대회에는 가족 단위 참가자도 많았는데, 알록달록한 PP저금통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8각의 저금통 각 면에도 슬로건을 넣어 아이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집결 시각이 되자 참가자들은 흥겨운 음악에 맞춰 몸풀기 체조를 하였고, 포항시장 등 내빈들의 인사와 경품 추첨 이벤트가 이어졌다. 출발 전 프로그램이 마무리될 무렵, 마치 대회의 주인공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안전보건공단 캐릭터 ‘안젤이’가 등장하였다. 안젤이는 단번에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고 많은 사람이 안젤이 사진을 찍거나 안젤이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다. 캠페인은 마라톤이 마무리된 11시까지 이어졌다. 이번 대회에는 6,000여 명이 참가하였는데, 캠페인을 접한 사람들은 “슬로건을 읽으며 안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겠다”, “마라톤 대회가 처음인데 필요한 물품을 나눠줘서 좋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5.6.14.(토)
영일대해수욕장 해상누각 앞
- **내용** : 홍보 부스 내 현수막, X-배너, 홍보용품 배치, 러닝벨트, PP저금통, 물티슈, 판박이 지급 등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영상 바로가기



생생 Talk Talk! 인터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감독관 권민혁

“지역 사회에 안전 의식을 끊임없이 퍼트리겠습니다.”



Q 이번 캠페인을 준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이번 마라톤 행사뿐만 아니라 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시청, 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단체와 합동으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안전 캠페인, 언론이나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활동도 추진하고 있고요. 포항철강마라톤 대회는 그 일환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철강마라톤 대회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은 편이라 그만큼 안전문화가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Q 포항철강마라톤 대회에서는 어떤 캠페인이 이루어졌나요?
최근 포항 지역에 중대재해가 연달아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4대 금지 안전 수칙과 안전문화 슬로건을 알리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 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폭염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실시해야 할 조치와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 등 안전문화 슬로건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Q 포항 지역의 어떤 업종에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나요?
그에 따른 대응책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포항은 철강, 제조업 관련 업체가 많다 보니 해당 업종에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 교육을 실시하고, 업체를 방문하여 안전 수칙을 직접 알리고 있어요. 폭염에도 취약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Q 캠페인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이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계획된 것이 있나요?

나눠드린 물품이 안전문화 슬로건 노출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이 안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물품을 사용하시면서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강 외에도 자동차 부품, 향만 등 많은 업체와 단체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런 행사에도 참여하여 캠페인을 펼치고, 지역 행사에도 참여해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아우를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손과 손을 맞잡고 즐기는 문화축제



구미 외국인 주민 문화축제 현장

지난 9월 28일, 구미 낙동강체육공원에서 '제20회 구미 외국인 주민 문화축제'가 개최됐다. 이번에는 'Global Gumi, 20 Years Strong!'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1,000여 명의 외국인 주민이 모여 축제를 즐겼다. 행사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가 대표 주관을 맡았다. 구미 안실단도 체험 부스를 설치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했다. 안전보건체험교육(VR교육) 및 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해 이주 노동자 및 지역주민에게 안전메시지를 전파했다.



1. 안전 슬로건을 들고 파이팅을 외치는 관계자들 2. VR 체험으로 안전문화를 배우는 외국인 노동자들 3. 다국어로 적힌 안전 수칙

포용과 교류의 장

20주년을 맞은 만큼, 축제는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행사는 공식행사, 문화행사, 부대행사로 나뉘었다. 공식행사에서는 식전공연, 의식행사 등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포문 역할을 맡았다. 한두레예술단의 풍물놀이가 시작되자 각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에 관심을 보였다. 사자탈이 등장했을 때는 모두 놀라움에 탄성을 내질렀다. 뒤이어 각국의 기수들이 슬로건을 들고 나타났다. 자국의 전통복장으로 나타나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서로의 문화가 한곳에 모여, 다문화 교류 20년의 성과를 되새기고 공동체의 다양성과 포용을 강조하는 시간이 되었다.

문화행사와 부대행사는 장기자랑, 홍보부스 운영 등 체험을 통해 각국의 문화를 알 수 있도록 구성됐다. 외국인들은 한국문화의 꽃 K-POP에 맞춰 춤췄고, 한국인들은 외국 전통 옷을 입거나 음식을 맛봤다. 서로의 문화의 위상을 느끼며 존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이다.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신의 문화를 당당히 소개할 수 있음에 자부심을 느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감명을 받았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다양한 문화권의 교류를 통해 함께 일하는 동료의 문화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글로벌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구미 안실단은 이번 행사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안전 체험 캠페인을 추진했다. 산업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기에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이번에는 '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 12대 핵심 안전수칙 준수'라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슬로건을 내세웠다. 체험 부스에서는 가상현실(VR)로 재해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참가자가 많은 행사이기에, 외국인 6명을 안전 리더로 지정 후 통역을 진행했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 번역을 통해 좀 더 쉽게 생활 및 작업장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안전보건공단경북지역본부장은 "이주노동자들이 지금보다 더안전하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의 차이로 잘 알지 못했던 안전 규칙을 체험하며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다. 한 참가자는 "안전문화에 관하여 스스로 무지했던 것 같다. 자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더욱더 안전에 유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하며, 고향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달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행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5.9.28.(일) 구미 낙동강체육공원
- ▶ 내용 : 기념식 및 체험 부스 운영

도자기처럼 단단하게, 안전의식을 빛다



문경 찻사발축제 연계 캠페인

5월 8일 문경새재 도립공원에서 열린 '문경 찻사발 축제'에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안전보건 홍보부스가 마련돼 축제의 활기를 더했다. 영주 안실단은 축제를 찾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의 소중함을 전했다.



1.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 행사로 축제 분위기 조성 2. '안전 돌림판 게임'을 통해 올바른 보호구 착용 지침을 학습 3.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은 안전보건공단 부스

도예의 고장, 문경새재의 봄

경북 문경은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장작 가마가 있는 곳이자, 국가무형문화재와 도예 명장들을 포함해 40여 개의 요장이 전통을 잇는 '도예의 메카'다. 매년 봄 이곳에서 열리는 문경 찻사발축제에서는 장인들이 만든 멋스러운 전통 찻사발과 실용적인 도자기를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으며, 도자기를 만드는 전 과정을 체험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태조 왕건>, <해를 품은 달>, <성균관 스캔들> 등 인기 사극들이 촬영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에서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 행사가 펼쳐져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지역 축제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보다 체험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확대한 덕분에 황금연휴와 맞물려 24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며 성황을 이루었다.

축제가 한창이던 5월 8일, 영주 안실단은 축제 현장에 안전보건 홍보 부스를 열어 시민들을 만났다. 화창한 5월, 활기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체험과 더불어 안전의 메시지가 축제장 곳곳에 퍼져나갔다.

체험으로 배우고 구호로 다짐한 안전

이번 캠페인은 지역 대표 문화 행사와 연계해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 수칙을 공유함으로써 산업현장과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과 함께 보조배터리, 칫솔·치약 세트, 우산 등 다양한 기념품을 준비한 부스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부스를 찾은 시민들은 먼저 안전 사고에 취약한 근로현장과 안전한 근로현장 사진을 비교하며 안전스티커를 붙이는 체험을 통해, 안전한 근로현장의 조건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둘러! 둘러! 안전 돌림판' 게임을 하며 올바른 보호구 착용 지침을 재미있게 배우고, 머리와 마음속에 안전 의식을 새겼다.

안전돌림판을 돌릴 때는 "좋아해! 사랑해! 안전해!"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축제에 함께 온 가족,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언제나 안전한 길 바라는 마음을 함께 나눴다.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장은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 속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5.5.8.(목) 11:00~17:00
문경 찻사발축제 현장
- 내용 : 안전문화 확산활동 부스 운영

시민과 함께 만든 '안전일터 조성의 날'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현장의
안전문화 캠페인

지난 10월 2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현장에는 축제의 흥겨움과 더불어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특별한 부스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안동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를 중심으로 민·관·공공기관이 함께 결성한 안동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 '안전일터 조성의 날' 캠페인을 열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맞이했다.



1. 행사의 성공을 기원하며 화이팅을 외치는 참여자들



2.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시민에게 홍보하는 모습
3. 남녀노소 모두 즐겁게 참여한 돌림판 이벤트

5대 중대재해와 12대 안전수칙, 축제 현장에 스며들다

이번 캠페인은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5대 중대재해 유형과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알기 쉽게 홍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안실단은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자료를 배포하고,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며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상적인 현장 안전수칙을 시민과 공유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안전이 곧 지역사회 안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했다.

참여로 만드는 안전문화

행사장에서는 관람객과 함께하는 안전구호 제창 시간이 마련돼, 모두가 한 목소리로 "안전한 일터, 모두의 행복!"을 외치며 안전의 가치를 되새겼다. 또한 돌림판 이벤트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해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단순한 홍보를 넘어 시민 스스로 안전문화의 주제로 참여하는 장이 된 것이다.

지속 가능한 안전문화의 확산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장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성원을 기원하며, 즐거운 축제의 추억과 함께 안전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안실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축제와 안전보건 정책을 연결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5.10.2.(목)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장
- 내용 : 5대 중대재해 및 12대 안전수칙 홍보, 시민 참여형 이벤트, 안전구호 제창 등

6 광주권

- 광주 92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캠페인
- 전주 96 전북현대모터스 FC 관람객 대상 안전문화 캠페인 개최
- 익산 100 원광대학교 축제(대동제) 연계 안전문화 확산 홍보 활동
- 군산 102 고창 청보리밭 축제 / 부안 마실 축제

- 목포 104 신안 퍼플섬 라벤더 축제 연계 캠페인
- 여수 106 2025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한마당 행사
- 제주 108 제17회 JEJU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온열질환 선제 조치!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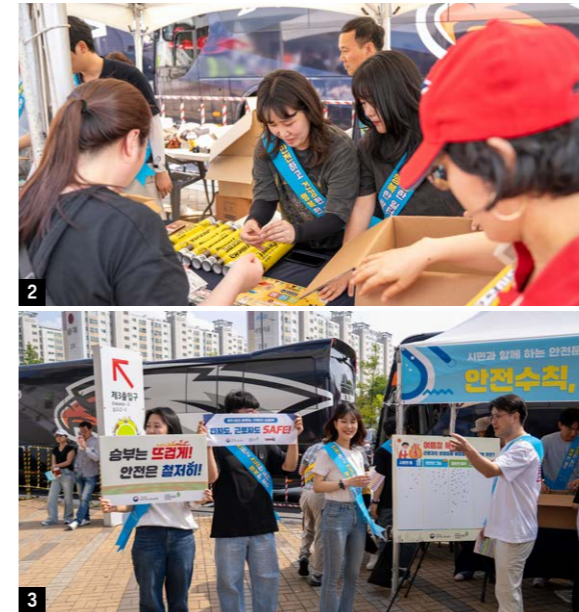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캠페인

6월 8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야구장 캠페인'이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렸다. 이번 캠페인은 여가 생활 점점 홍보를 통해 안전메시지 도달 범위를 확대하고 경기장을 찾은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획됐다. 아울러, 다가오는 여름에 대비해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참여형 캠페인도 병행했다.



1. 경기 시작 전 캠페인 부스에 모인 시민들



2. 추억의 뽑기판에 참여해 홍보물을 수령하는 시민들
3. 야구장에 어울리는 문구로 제작된 안전수칙 홍보 피켓

응원하는 선수들을 만나기 위해 일찍부터 경기장을 찾은 관객들이 운집한 가운데 광주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재해예방기관 임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부스를 설치, 캠페인 진행 전 동선을 확보하고 인파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특히, '타자도, 노동자도 SAFE!' '승부는 뜨겁게! 안전은 철저히!' '안전수칙, 우리의 일터에 꼭 필요한 수비 전략!' 등 야구장에 어울리는 문구가 인쇄된 홍보물품은 부스가 설치되기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챔피언스필드를 찾은 40명의 안전 지킴이

오후 3시 30분, 기아챔피언스필드 3번 출구에 설치된 부스에서는 본격적인 캠페인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을 묻는 스티커형 설문 조사에 응했다. 진행요원들은 시원한 물, 편안한 그늘, 충분한 휴식이 온열질환 예방에 꼭 필요함을 알리는 동시에 뜨거운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설문을 마친 이들은 추첨(추억의 뽑기판)을 통해 페이퍼 스틱(응원봉), 보냉백, 야광 키링, 소독용 티슈, 쿨패치 등 홍보 물품을 수령했다.

일부 진행요원들은 경기장 밖 곳곳의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입장을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다가가 본 캠페인을 홍보하고, 온열질환의 위험성과 유의 사항을 알리며 홍보물을 적극 배포하기도 했다.



4. 경기장 입구에서 홍보하는 안전단원들



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이도영 청장의 시구 6. 경기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캠페인 참여를 권하는 진행자들 7. 경기 시작 전 어린이합창단(안전송, 2분)
8. 3회초 종료 후 온열질환 예방수칙(20초) 9. 외야 현수막 시안

야외 캠페인부터 시구 행사까지

경기 시작 전인 오후 2시 즈음에는 외야에 [안전수칙 준수, 사고없는 일터를 위한 최고의 수비입니다.] [작업 전 10분 안전 미팅, 전 직원 위험성 평가 참여, 안전 보호구 지급·착용] 등의 대형 현수막을 내걸어 입장하는 관중들의 안전 의식을 일깨웠다.

경기장 밖 캠페인이 마무리된 후에는 시구 행사가 이어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청장의 시구에 앞서, 경기장 메인 전광판에 TBN 광주교통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안전송(2024년 공단 제작) 합창 영상을 송출하여 관심과 흥미를 끌었고, 경기 중간중간에는 산업안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 영상을 수시 송출하여 캠페인에 참여하지 못한 관중에게도 온열질환의 위험성과 선제 대응의 중요성을 알렸다.

한편, 이날 현장 캠페인 부스는 1,200여 개의 홍보 물품이 조기 소진되는 등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종료됐다.

행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5.6.8.(일) 15:30~17:00
- ➔ **내용**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설문(스티커형), 추억의 뽑기판, 현수막 설치, 시구행사, 중앙 전광판 송출, 페이퍼스틱(응원봉), 보냉백, 쿨패치 등 홍보물품 배포

생생 Talk Talk! 인터뷰

캠페인 참여자 노일섭(가명) 부자



“아빠는 호랑이,
아들은 독수리!”

Q 아빠와 함께 나들이 왔는데, 오늘 날씨가 덥지 않은지?

아들 카페 안에 있다가 독수리 선수단 버스가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밖으로 나왔는데, 너무 더워요. 한여름이 아닌 데도 많이 더워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견딜만은 한데, 이러다가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다고 하니까 걱정도 돼요.

Q 평소 온열질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나요?

아들 선생님이 특히 여름방학 때 더위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별로 신경은 안 썼던 거 같아요. 그런데 오늘 캠페인에서 설명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위험한 질환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지구가 계속 더워지고 있어서 온열질환 환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예방조치에 따라 조심하고 학교에서도 여름에는 야외 활동을 좀 적게 해야 겠다고 생각했어요.

Q 오늘 캠페인에 참여한 소감을 한마디해 주신다면?

아들 아빠가 밖에서 일하시는 게 걱정돼요. 힘도 세고 평소에 축구도 좋아하셔서 건강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출근하실 때 시원한 얼음물을 꼭 챙겨드릴 거예요. 여름이 되면 휴가로 워터파크나 계곡에 놀러갈 생각만 했는데, 앞으로는 아빠가 힘들지 않게 실내에서 휴가를 보내자고 얘기해 보려고요. 엄마도 가끔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데, 선풍기나 손풍기를 꼭 챙겨드릴게요.

Q 야구장 캠페인 참여 소감은?

아빠 모처럼 가족들과 나들이 와서 뜻깊은 캠페인에 참여해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은 청주에 살고 있지만 고향이 전라도 예요. 그래서 저는 호랑이 팬인데, 아들은 독수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캠페인에서 호랑이 응원봉을 받은 덕분에 아들과의 응원전에서는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웃음).

Q 여름철 온열질환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계셨는지?

아빠 사실 건설 철거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날씨 변화에 애를 많이 먹습니다. 건강에는 자신 있다는 막연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온열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니 지금부터라도 조심하고 작업 현장에서 준비를 잘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 가서 동료들에게도 오늘 캠페인에 대해 이야기해주려고 합니다.

전북 “심장이 뛰는 한 안전을 지켜주리라”



전북현대모터스 FC 관람객 대상 안전문화 캠페인 개최

전주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지난 6월 1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경기를 찾은 1만 1천여 명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대규모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뜨거운 응원 열기 속에서 관람객의 안전의식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전북현대모터스 FC의 대표 응원이 “심장이 뛰는 한 그대를 지켜주리라”에서 영감을 받아, “심장이 뛰는 한 안전을 지켜주리라”라는 구호를 내걸고 진행됐다.



1. 경기 시작 전, 뜨거운 구호와 함께 열린 발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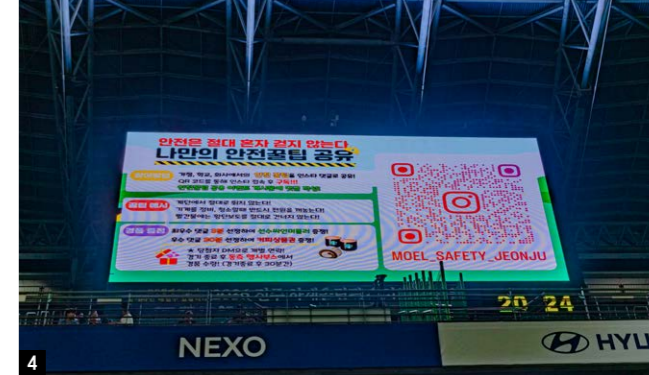
스포츠와 안전의 이색 협업

전북특별자치도 내 37개 기관에서 130여 명의 전주 안실단원이 참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가 공동 주관하고 전북현대모터스 FC 구단이 적극 협력한 전북 현대 축구장 시민 참여 안전문화 캠페인은, 시민 참여와 기관 간 협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안전문화 확산 모델을 제시했다.

전주 안실단은 행사장에서 관람객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안전 OX 퀴즈 대회, ▲전광판 영상 및 SNS 이벤트, ▲전북현대 굿즈(실링 키)와 안전부채 배포 등 다채로운 체험형 활동이 펼쳐졌다. 특히 OX 퀴즈는 미니 축구 골대에 공을 차 넣으며 정답을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축구 경기 하프타임에는 4대 금지캠페인과 온열질환 예방 홍보 영상이 경기장 전광판을 통해 송출되었으며,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나만의 안전 꿀팁 공유'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 이벤트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천 중인 안전 습관을 댓글로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노하우를 배우고, 스스로 행동을 되돌아보는 쌍방향 참여 캠페인으로 기획되었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도 응원처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축구라는 즐겁고 열정적인 문화 콘텐츠와 결합해, 안전을 ‘나의 일’로 인식·유도하는 생활밀착형 안전문화 확산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 안전 OX 퀴즈대회에 참여한 어린이
3. 전북현대 굿즈와 안전부채 배포 현장
4.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나만의 안전 꿀팁 공유' 이벤트 진행

온열질환 예방 메시지도 함께 전파

2025년 여름, 예년보다 한층 더 무더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캠페인에서는 ‘물·그늘·휴식’을 핵심으로한 온열질환 대응 메시지도 함께 전파됐다. 특히 ‘전프리카(전주+아프리카)라는 별칭이 생길 만큼 뜨거워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안전보건공단 전북 지역본부 직원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내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안전부채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생활 밀착형 온열질환 예방 홍보를 병행했다. 행사장에서는 전주 안실단 참여 업체들이 함께 참여해, 단체 응원과 홍보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메시지를 전달했다. 경기 내용에서도 전북 현대모터스 FC가 3:2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캠페인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5. 하프타임에 송출된 안전 홍보 및 인스타그램 이벤트 영상



6. 안전부채를 들고 열띤 응원을 펼친 참가자들

전북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과 전북 현대모터스 FC 협업 캠페인은 스포츠의 열기 속에서 안전의 가치를 되새긴 의미 있는 자리였다. “심장이 뛰는 한 안전을 지켜주리라”는 슬로건처럼, 안전이 더 이상 특별한 순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함께해야 할 기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전주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오늘도, 모두의 심장이 뛰는 그 순간까지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갈 것이다.

행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5.6.17(화) 16:00~22:00 전주월드컵경기장
- ➔ 내용 : 안전 OX퀴즈, 전북현대 굿즈 및 안전부채 배포 등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하프타임 전광판 영상 송출 및 인스타그램 안전 꿀팁 이벤트 진행, ‘물·그늘·휴식’ 온열질환 예방 메시지 전달

생생 Talk Talk! 인터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감독관 서재훈

Q 이번 캠페인을 전북현대와 함께하게 된 배경은?

전북도민에게 익숙한 스포츠인 축구를 매개로, 무겁게 느껴지는 ‘안전’ 주제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전북현대와 함께한 이번 캠페인은 스포츠와 안전문화가 만나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Q 특히 강조한 안전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생활 속 기본 수칙 실천입니다. 예를 들어 ‘젖은 손으로 콘센트를 만져도 된다?’와 같은 유쾌한 OX퀴즈를 통해 아이들과 시민들에게 안전을 재미있게 체득하게 했고, 무더위를 대비한 온열질환 예방 메시지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Q 캠페인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사고의 상당수는 기본 안전수칙만 지켰다면 예방 가능했을 일입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안전이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라는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 퍼졌으면 합니다. 이 작은 인식의 변화가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안전의식의 변화,
그것이 생명을
지킵니다.”



Q 평소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어떤활동을 해왔나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 점검, 교육, 홍보까지 함께 해왔고, 현장 전문가들과의 협업은 항상 큰 시너지를 냈습니다. 이번 행사 역시 전주 안실단 참여 기관들이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가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Q 향후 캠페인 계획은?

앞으로도 SNS, 지역 축제, 스포츠 이벤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전문화를 시민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게 하겠습니다.

청춘의 여름, 안전문화로 더 빛나게



원광대학교 축제(대동제) 연계 안전문화 확산 홍보 활동

원광대학교 축제는 매년 20대 청년들이 학업에서 벗어나 에너지를 발산하는 무대이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거리와 홍보 부스로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울리는 축제로 자리매김해왔다.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이번 축제에 익산 안전문화 실천추진단도 함께했다.



1. 안전 보호구 착용 및 심폐소생술 체험을 하는 학생들 2. 안전퀴즈를 통해 꼭 필요한 안전 지식 학습
3. '엄마, 아빠, 안전하게 일하기 약속해요'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안전규칙 준수 다짐' 스티커 붙이기 행사 4.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 참가자들

캠퍼스 축제 속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 한마당

'빛나고 찬란할 여름'을 주제로 열린 2025년 원광대학교 축제는 총학생회의 정성과 노력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사흘 동안 이어진 축제 기간 동안 익산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안전문화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시민들과 만났다. 특히 첫날에는 산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사례와 예방법을 생생한 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VR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방문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또한 아직 현장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학생들에게는 낯설 수 있는 안전 보호구 전시와 착용 체험을 준비해, 상황에 맞는 장비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혈압·혈당 측정과 인바디 검사가 진행되어 바쁜 일상에서 건강 점검을 놓치기 쉬운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고, 심폐소생술 체험과 안전 퀴즈를 통해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지식을 배울 기회도 제공되었다. 여기에 더해 "식사 거르지 마세요, 안전도 거르지 마세요" 같은 안전메시지를 전하는 안전보건공단 캐릭터 등신대와 사진을 찍어 가족에게 전송하는 이벤트도 열려, 안전의식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널리 나누는 뜻깊은 축제의 순간이 되었다.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5.5.12.(월)~5.14.(수) 10:00~17:00
원광대학교
- 내용 : 축제 연계 안전홍보부스 운영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함께 다짐한 안전, 함께 지켜갈 약속

부스 운영과 더불어, 축제의 열기가 가득한 캠퍼스 곳곳에서는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의 노·사·민·정 합동 캠페인도 진행됐다. 5월 13일 화요일, 원광대학교 송산기념관 소법당에는 익산·김제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소속 25개 기관·단체·기업의 관계자 112명이 모였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결의문을 낭독하며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협력하며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결의문에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산업현장에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문 낭독과 단체 사진 촬영을 마친 뒤, 참가자들은 캠페인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어깨띠를 두른 채 캠퍼스로 나섰다. 캠퍼스 곳곳에서 만난 대학생들과 소탈한 대화를 나누고 안전메시지가 담긴 부채를 건네며, 안전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캠페인과 부스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사회로 나아가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번 축제가 남긴 가장 빛나는 성과일 것이다.

청보리밭에서 퍼진 안전의 메시지



2025 고창 청보리밭 축제



지역 축제와 연계한 안전문화 확산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

초록빛 청보리가 출렁이던 4월의 끝자락, 고창군 공음면 학원농장에서는 봄 풍경만큼이나 눈에 띄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시민들을 맞이했다. 4월 28일 열린 '청보리밭 축제' 현장에서 군산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원들이 함께 참여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이 진행됐다.

안전문화 확산의 실천형 모델

축제장 한편에 마련된 캠페인 부스에는 '안전한 일터 모두의 행복, 당신의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내걸렸고, 방문객들에게는 안전 문구가 담긴 물티슈와 칫솔세트가 제공됐다. 준비된 400세트의 홍보물품은 행사 초반부터 빠르게 소진되며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청보리밭을 거닐던 시민들은 자연을 즐기며 동시에 안전메시지를 마주했다. 산업현장이나 특정 직업군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이어지는 가치라는 점이 축제의 분위기와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전달됐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아이들과 함께 '안전'의 의미를 이야기하며 현장에서 공감대를 넓혀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대표 축제의 공간성을 활용해 안전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낸 사례로 평가된다. 규정이나 의무를 앞세우기보다, 시민의 발걸음과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안전을 이야기함으로써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5.4.28.(월) 13:00~15:00
고창군 공음면 학원농장 '청보리밭 축제장'
- 내용 : 안전문화 확산 현수막 설치, 안전문구 물티슈·칫솔세트 배포, 시민 대상 안전문화 홍보 활동

축제 속에 스며든 안전문화



2025 부안 마실 축제

5월 2일, 부안 해뜰마루 지방정원에서 열린 '부안 마실축제'에서는 축제의 즐거움과 함께 안전의 가치를 공유하는 현장 캠페인이 운영됐다.

군산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 주관한 이번 활동은 축제를 찾은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안전문화를 알렸다.



축제를 찾은 방문객에게 자연스럽게 전파한 생활 속 안전문화

지역 축제 기반 안전문화 확산 모범 사례

캠페인 부스에서는 '안전한 일터 모두의 행복, 당신의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홍보가 이뤄졌으며, 안전 문구가 새겨진 물티슈와 칫솔 세트 400세트가 시민들에게 배포됐다. 준비된 물품은 짧은 시간 내 모두 소진될 만큼 관심을 모았고,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일상 속에서 안전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은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접했다. 특히 산업현장을 넘어 가정과 일상에서도 지켜야 할 기본 가치로서의 '안전'에 공감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자녀와 함께 안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캠페인 취지에 호응했다.

이번 부안 마실축제 캠페인은 지역 축제의 개방성과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안전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한 사례다. 현장 중심의 운영과 직접 소통을 통해, 안전문화가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5.5.2.(금) 14:00~
부안군 해뜰마루 지방정원 '부안 마실 축제장'
- 내용 : 안전문화 확산 현수막 설치, 안전문구 물티슈·칫솔세트 배포, 시민 대상 안전문화 홍보 활동

보랏빛 물결 따라 흐르는 안전문화



신안 퍼플섬 라벤더 축제 연계 캠페인

5월 17일, 신안군 박지도에서 열린 '퍼플섬 라벤더 축제' 현장에 시민들과 함께하는 일터안전 홍보 부스가 마련되었다. 목포 안실단은 지역민들의 일상과 일터에 필요한 안전 정보를 알기 쉽게 전했다.



1. 라벤더 색에 맞춰 보라색으로 꾸민 홍보 부스 2. 안전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준 '안전 2행시' 짓기 3.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캠페인 4. 특히 호응이 높았던 '안전 OX 퀴즈'

퍼플섬 라벤더 축제, 안전문화와 만나다

매년 5월, 신안군 '퍼플섬'에서는 향긋한 라벤더 축제가 열린다. 1,000개가 넘는 신안군의 섬 가운데, 안좌도의 부속 섬인 반월도와 박지도는 2021년 '퍼플섬'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두 섬에서 많이 나는 도라지, 꿀풀꽃, 콜라비가 모두 보라색이라는 점에서 착안해 섬 전체를 보라색으로 꾸미며 이색적인 관광지로 탈바꿈한 것이다.

2025년에도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퍼플섬 라벤더 축제가 열렸다. 안좌도와 박지도를 보랏빛 해상 다리를 건너 축제 행사장에 들어서면, 2,000만 송이 프렌치 라벤더가 만들어낸 보랏빛 물결이 환상적인 풍경을 선사했다. 보라색 옷이나 신발, 모자 등을 착용하면 입장료가 면제되어, 현장은 보라색 아이템으로 멋을 낸 방문객들로 한층 더 화사했다. 축제 기간 10일 동안 5만여 명이 다녀갔으며, 안전보건공단도 축제 이틀날 '일터안전 홍보부스'를 마련해 보랏빛 축제에 동참했다. 가족, 친구들과 봄의 향기를 만끽하는 축제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안전문화를 전하는 따뜻한 시간이 마련되었다.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5.5.17.(토) 09:00~18:00
신안 퍼플섬 라벤더 축제 행사장
- **내용** : 안전문화 확산활동 부스 운영

놀이처럼 즐기며 배우는 안전

알차게 준비한 부스에는 200여 명의 시민이 방문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안전 2행시' 짓기에서는 각자의 재치를 뽐내며 안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직원들은 안전보건공단 캐릭터 '안젤이'가 그려진 부채와 칫솔·치약 세트를 나눠주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안전을 실천하세요!"라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 축제의 열기를 식혀주는 부채와 실용적인 칫솔·치약 세트는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부스의 핵심 프로그램은 '안전 OX 퀴즈'였다. 어업, 농업, 축산업 종사자가 많은 신안군의 특성을 반영해 관련된 문제들이 준비되었다.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수산용 포르말린은 발암물질이다?', '선박 사망사고는 바다 추락사고가 많다?', '지붕공사 추락사고는 축사에서 가장 많다?' 등 종사자도 헛갈릴 수 있는 안전 정보를 퀴즈로 제공해 시민들의 기억에 오래 남도록 했다.

참여한 시민들은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되어 유익하다", "일할 때 더욱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나라는 달라도, 안전한 일터는 함께



2025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한마당 행사

여수시는 지난 9월 14일(일)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 엑스포홀에서 '다름을 넘어, 함께 피어나는 우리'를 주제로 '2025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안전교육(VR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1. 안전일터 배너를 들고 있는 사람들

외국인 안전보건 VR 체험 프로그램 실시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사는 행사장 내 마련된 부스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VR 산업안전 체험교육과 특별 안전주간 캠페인을 실시했다. 프로그램은 가상현실(VR)을 활용해 추락, 부딪힘, 끼임,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예방을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실감나게 재현했다. 총 256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참여해 위험요소를 직접 체험하며 올바른 안전수칙을 익혔고, “체험으로 배우는 안전교육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현장에서는 10개국 언어로 제작된 ‘사업장 안전보건수칙 10계명’을 배포해 언어 장벽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

체험 중심의 교육, 산업안전문화 확산의 새로운 모델

이번 활동은 다문화 사회 속에서 산업안전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한 우수 활동으로, 국적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문화를 조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기존의 강의 중심 교육과 달리 VR 기반의 체험형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교육 몰입도와 실천력을 강화했고, 산업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안전행동 학습 효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다국어 자료와 실감형 체험을 결합한 교육 방식은 언어·문화 차이



2. 2025 다문화가족 한마당 행사

로 인해 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지사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VR체험과 다국어 자료를 적극 활용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5.9.14.(일) 09:00~16:00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엑스포홀 1·2층일원
- 내용 : 행사구역 내 안전보건 VR체험 및 홍보부스 운영, 외국인 노동자 대상 안전 보건자료(외국어) 배부, 활용한 체험교육 진행

모두가 함께 만든 '안전한 일터'



제17회 JEJU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지난 9월 26일, 제주시 시민복지타운광장 일원에서는 '제17회 JEJU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이 열렸다. 제주 안실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가 함께 만드는 '안전문화 확산'을 목표로, 다양한 체험과 캠페인을 통해 시민 6천여 명에게 안전의 가치를 전했다.



1. 시민복지타운광장에서 열린 식전 행사 2. 공단 이사장 표창장 및 감사패 수여 3. 12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

지역이 함께 만든 안전축제

이번 행사는 '안전일터 조성의 날 캠페인'과 '제주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활동'이 결합된 공동행사로, 지방정부·공공기관·민간단체 등 65개 기관이 참여했다. 행사장에는 화재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74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공단 제주지역 본부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홍보관'과 '산업안전 보건 VR체험관'을 설치해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한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산업 보건 상담 부스를 마련해 혈압·혈당 측정, 근골격계 테이핑 처치 등 실질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안전의 퍼즐을 완성하다

개막식에는 제주도지사와 교육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퍼포먼스'를 함께했다. 각 기관 대표들이 참여한 퍼즐 퍼포먼스를 통해 '사고 없는 일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이 완성되며, 안전도시 제주의 비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날 제주 안실단은 미주종합건설, 한울엔제주 등 지역 유공자 5명에게 공단 이사장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하며, 산업현장에서 안전문화를 선도한 노고를 격려했다. 행사장에서는 'VR 안전체험관'을 비롯해 포토존, 안전보건 리플렛 배부, 캐릭터 키링

등 친근한 홍보물품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홍보관'은 5대 중대재해 예방과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전달하는 체험형 부스로 운영돼, 어린이부터 노동자까지 모두가 직접 체험하며 안전을 배웠다. 산업보건 상담 부스에는 하루 동안 90여 명이 참여해 건강상담과 생활습관 개선 팁을 얻었다.

함께 실천하는 '안전한 제주'

제주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민간기관 등 40여 명은 '전략적 재능나눔 캠페인'을 전개하며 '내가 지키는 일터 안전수칙, 우리 가족 행복을 위한 실천'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시민들은 7개 체험 부스를 돌며 도장을 모으는 미션형 캠페인에 참여했고, 안전보건자료와 기념품을 받아가며 자연스럽게 안전수칙을 익혔다. 이번 'JEJU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은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한 '체험형 안전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공단 제주지역본부는 앞으로도 일터와 생활 속 안전이 하나로 이어지는 '안전한 제주'를 위해 다양한 협력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5.9.26.(금) 10:00~17:00
제주 시민복지타운광장
- 내용 :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홍보관 및 산업안전보건 VR체험관 운영

7 대전권

대전 112 제3회 대전 특성화고 안전지식경진대회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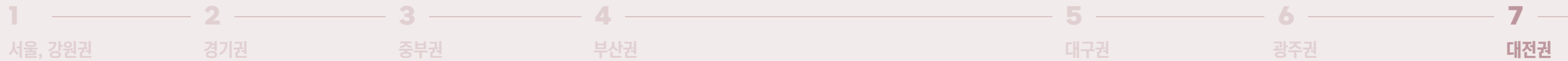
보령 116 서천 한산모시문화제 안전메시지 확산 캠페인

청주 118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

충주 122 예비산업인력 안전문화 캠페인

천안 124 2025 아산 백의종군길 걷기대회 캠페인

서산 126 2025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정기보수 안전캠페인



미래 안전을 책임질 주인공들을 만나다



제3회 대전 특성화고 안전지식경진대회 현장



1. 대회가 시작되기 전 정답판을 꾸미는 참가자들

‘제3회 대전 특성화고 안전지식경진대회’가 7월 15일 화요일 한국폴리텍대학교 대전캠퍼스 나래관 강당에서 열렸다. 안전지식경진대회는 예비 산업인력을 대상으로 안전지식 함양과 안전문화 확산을 목표로 2023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달인 7월에 대전 안실단이 추진한 이번 대회는 대전 지역 내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안전’으로 가는 첫걸음



2. 대회가 열리는 강당으로 들어서는 참가자들
3. 제3회 대전 특성화고 안전지식경진대회 개회 선언
4. 마지막까지 대회 준비에 열중한 모습

비가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날씨처럼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의 학생들이 강당으로 들어섰다. 학생들은 담당 교사의 인솔 아래 각 학교에서 대회를 위해 제공된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 모두 안전하게 도착하였다. 대회 시작 전까지 학생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예상 문제를 보며 저마다의 방법으로 대회를 준비하였다. 이번 안전지식 경진대회에는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대성여자고등학교,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총 10개 학교에서 학생 191명이 참가하였다.

오후 2시, 안전보건공단 본부장이 ‘제3회 대전 특성화고 안전지식경진대회’ 개최를 선언했다. 개회 선언 이후 국민 의례와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 한국폴리텍대학교 학장, 중도일보 사장 등의 축사가 있었는데, 그중 누구보다 뜻깊은 응원을 전한 이들이 있었다. 바로 제1회 안전지식 경진대회 수상자였던 양민경 주임(현재 안전보건공단 근무)과 김소리 비서(현재 중도일보 근무)였다. 두 사람은 대회 참가자였던 만큼 진심이 가득 담긴 응원을 전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축사와 기념 촬영이 끝난 후 안전지식경진대회가 이어졌다. 대회는 TV 프로그램 ‘도전! 골든벨’ 형식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대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약 한 달간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홈페이지의 이러닝 교육과정과 배포된 자료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및 산업안전·생활안전·학교안전 관련 주요 내용을 학습하였다.



5. 정답 발표를 기다리는 참가자들 6. 제1회 대회 참가자들의 축하 7. 고용노동청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참가자들

작은 동기 부여, 안전의식 제고 효과

문제 출제 직전 강당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노동부와 공단의 대표 캐릭터 이름을 맞추는 연습문제가 출제되었다. 그 덕분인지 첫 번째 실전문제에서 모든 참가자가 통과하며 기분 좋게 대회가 시작되었다. 문제 출제와 동시에 거침없이 답을 적는 참가자들의 모습과 꽤 여러 문제가 출제되고 나서야 패자부활전을 진행할 수 있었던 데에서 학생들이 대회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다. 패자부활전은 OX 퀴즈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패자부활전을 통해 모든 탈락자가 부활에 성공하였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순위를 가리기 위한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었다.

대회는 박빙의 대결 끝에 최후의 1인이 골든벨을 울리며 종료되었다. 대상(1명, 50만 원), 최우수상(2명, 30만 원), 우수상(3명, 20만 원), 장려상(13명, 10만 원) 등 최종 순위 19명에게는 상장과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시상과 별개로 추첨을 통해 갤럭시 워치, 버즈, 에어팟 등을 경품으로 지급하고, 안전문화 동행 파트너십 가입기관에서 후원한 음료와 과자를 모든 참가자에게 지급하여 수상자뿐만 아니라 대회 참가자 모두가 대회를 즐길 수 있었다. 또한 이날 대회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준비한 온열질환 5대 기본 수칙이 기재된 부채 배부, 고용노동청이 준비한 임금 체불 관련 인식 개선 및 기초노동질서 안내 활동도 함께 진행되었다. 대회를 찾은 학생과 교사는 “대회를 준비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안전지식을 알게 돼서 뜻깊었다”, “교내 대회가 먼저 진행된다면 범업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상품이 학생들에게 확실히 동기 부여가 되는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5.7.15.(화)
한국폴리텍대학교 대전캠퍼스 나래관
- 내용 : 대면 퀴즈대회, 부채 지급 등

생생 Talk Talk! 인터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양민경** 제1회 안전지식경진대회 수상자

Q '제1회 대전 특성화고 안전지식경진대회'에 참가한 계기와 준비 과정이 궁금합니다.

대회는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알게 됐어요. 요즘 우리는 안전불감증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저 역시 평소 안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안전지식이나 산업안전 상식을 접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제공받은 문제집을 중심으로 방과 후에 친구들과 스피드퀴즈처럼 서로 문제를 내고 맞히며 재미있게 공부했어요. 법령집에 나오는 단어를 짧은 준비 기간 내에 이해하는 건 조금 어려웠지만, 응급처치 부분은 실제 상황을 떠올리며 공부했더니 기억이 잘되더라고요. 친구들과 추억도 쌓고, 안전지식도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Q 경진대회 수상 소감과 안전보건공단에 입사했을 때 소감이 궁금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했는데, 입상까지 하니 '안전'과 친해진 것 같아 뿌듯했어요. 안전이 생명과 밀접한 소중한 가치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도 됐고요. 대회에 참가하면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죠. 그리고 대회가 끝난 후 안전보건공단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됐어요. 저도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원서를 작성할 때, 면접장으로 갈 때 순간순간이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침내 안전보건공단 입사의 꿈을 이룬 후,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며 근무 중입니다.

Q 안전보건공단 근무 후, 안전수칙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있으셨나요?

한번은 야외 작업구역에 작업감독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 2인 1조가 작업수칙인 사다리 작업을 혼자 하고 계시더라고요. 즉시 작업 중지 및 보호구 착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개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호구 착용이 필수 안전수칙임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때 필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한 한편, 기본적인 작업수칙만 제대로 지켜도 안전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Q 특성화고 안전지식경진대회에 참가한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도 처음에는 '안전'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저를 지키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나의 안전과 내가 일하게 될 현장에서의 안전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가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안전지식경진 대회가 이런 사실을 깨닫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도전해보시길 바라요. 문제를 맞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멀게만 느껴졌던 '안전'과 가까워지는 거니까요!

“안전,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제 속에서 만나는 안전



서천 한산모시문화제 안전메시지 확산 캠페인

지역의 전통문화 축제가 '안전'을 만나는 특별한 공간으로 변했다. 지난 6월 13일, 충남 서천군 한산면 한산모시관 일원에서 열린 서천 한산모시문화제 현장에서는 산업안전 퀴즈 부스를 중심으로 한 안전메시지 확산 캠페인이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은 문화제를 찾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안전의 중요성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1. 산업안전 퀴즈 부스 앞에서 안전문화 확산의 결의를 다짐 2.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위한 퀴즈에 참여하는 시민들 3.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산업안전퀴즈 부스 4. 온열질환 초성퀴즈 문제지

체험으로 배우는 산업안전

고용노동부 보령지청과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서천군청 등 보령 안실단이 함께한 이번 활동은 '즐거워 배우는 안전'을 콘셉트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산업안전과 온열질환 예방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캠페인의 중심에는 산업안전 퀴즈 부스가 운영됐다. 부스를 찾은 참가자들은 먼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부받아 내용을 살펴본 뒤, 이를 바탕으로 산업안전 퀴즈에 참여했다. 퀴즈는 무더운 여름철 특히 중요한 물 섭취, 휴식, 그늘 활용 등 실생활과 밀접한 안전수칙을 중심으로 구성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퀴즈를 마친 참가자들에게는 뽑기판을 활용해 수건세트, 우산, 부채, 치약·칫솔세트, 물티슈, 종이모자 등 다양한 홍보물품이 제공됐다. 총 400여 개의 홍보물은 축제의 재미를 더하는 동시에 안전메시지를 일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

눈에 띄는 메시지, 오래 남는 안전

현장 곳곳에는 온열질환 예방 현수막이 설치돼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짧고 직관적인 문구로 구성된 현수막은 퀴즈 부스에 참여하지 않은 관람객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안전 정보를 전달하며, 행사 전반에 안전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단순한 홍보에 그치지 않고, 방문객들과 직접 소통하며 여름철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와 예방 방법을 설명했다. 문화와 안전이 어우러진 현장형 캠페인은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지역 축제에서 시작되는 안전문화

이번 서천 한산모시문화제 안전메시지 확산 캠페인은 산업현장이 아닌 지역 문화행사 공간에서 안전을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전은 특정한 장소에 국한된 규칙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축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했다. 보령 안실단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한 이번 활동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안전 문화 확산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지역 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형 캠페인을 통해, 일터와 일상을 잇는 안전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5.6.13.(금) 10:00~14:30
한산모시관 일원
- 내용 : 산업안전 퀴즈 부스 운영, 온열질환 예방 홍보 및 안전메시지 확산 캠페인

삶 가까이 스며드는 안전의 약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

7월 3일, 청주 안실단 그리고 (주)면사랑 진천공장, CJ제일제당 진천 Blossom Campus, (주)팔도 진천공장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무더위를 뚫고 한자리에 모인 협약 기관 관계자들은 협약 체결에 힘찬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의 협력과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의지를 굳게 다졌다.



1. 협약 기관 관계자 단체 사진 촬영



2. 협약 취지 및 내용 설명을 경청하는 관계자들 3. 협약서에 서명하는 각 기관 대표

함께 걸어온 안전의 길, 충북과 함께 한 걸음 더

이번 파트너십은 충북 지역사회에 안전문화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역을 대표하는 식품기업 세 곳과 손을 맞잡으며 추진되었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이미 안전보건공단과 다양한 협력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안전문화를 꾸준히 실천해 온 곳들이다. (주)팔도 이천공장은 2024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및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제품포장에 안전문화 슬로건을 부착해 출시하는 한편,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컨설팅을 받아 산재 예방에 힘써 왔다. CJ제일제당은 2022년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영상 콘텐츠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24년에 '안전보건 우수교안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꾸준히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다. 또한 공주공장에서는 안전보건공단의 '찾아가는 VR 가상현실 교육'에 참여해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적극 참여했다. (주)면사랑 역시 2023년 고용노동부 청주시청 및 안전보건공단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진천공장에 '우리의 MBTI는 SAFE'라는 친근한 슬로건을 내걸고, 제품 포장과 라벨에도 안전문화 슬로건을 부착했다. 더불어 공단의 지원을 바탕으로 VR 콘텐츠 교육 등 임직원을 위한 안전 교육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각 기업은 현장밀착형 실천과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 수준을 강화해왔다. 이번 파트너십은 그동안의 경험과 노력을 한데 모아 충북 지역 전반에 지속 가능한 안전문화를 널리 퍼뜨리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탁에서 만나는 안전메시지

이번 협약은 각 기관과 기업의 역량과 자원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 노동자들을 산재, 사고,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공공의 감독이나 기술 지도에만 의존하기보다, 지역 사업장들과 힘을 합쳐 안전문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다.

구체적으로는 안전문화 슬로건을 제작·배포하며, 제품 포장과 라벨에 안전문화 슬로건을 부착함으로써 대국민 안전메시지 전달을 함께 실천한다. 또한 청주 안실단은 처벌·단속 위주의 기존 안전 정책에서 벗어나,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지역 사업장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한편, 비슷한 산업 환경을 공유하는 기업 간에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특히 다른 어떤 기업들보다도 소비자의 일상에 가까이 닿는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업계와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주)팔도는 '비락식혜 1.5'에, (주)면사랑은 '라면 냉동면' 제품에 안전문화 슬로건을 표기해 출시하며, CJ제일제당도 추후 동참할 예정이다. 이처럼 제품을 통해 전해지는 안전메시지는 마트나 가정의 식탁에서 일상의 순간마다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식을 바꿔나갈 것이다.

행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5.7.3.(목) 11:00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3층 대회의실
- ▶ 내용 : 중대재해 감축과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캠페인



4. 안전문화 슬로건이 표기된 (주)팔도 제품
5. 안전문화 슬로건이 표기된 (주)면사랑 제품

생생 Talk Talk! 인터뷰

(주)면사랑 안전보건부 부장 진경동

Q 평소 안전보건공단과 면사랑은 어떻게 협력 해오셨나요?

면사랑은 2023년에도 안전보건공단과 파트너십을 맺은 바 있습니다. 진천공장 내부와 제품 포장과 라벨에 안전문화 슬로건을 부착해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로의 안전문화를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VR콘텐츠를 활용한 안전교육 등 다양한 사고 예방 활동을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공단의 기술 자문과 지원은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제거하는 예방 중심 안전문화가 현장에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Q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2023년 파트너십 체결은 자사가 안전문화에 보다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한 걸음 더 나아간 전문적이고 실천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식품업계에 속한 기업들과 함께 힘을 모은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Q 앞으로 면사랑에서는 안전문화를 위해 어떤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신지요?

제품 포장과 라벨에 안전문화 슬로건을 다양하게 표기하고 부착 제품을 확대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안전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파트너십을 맺은 관계사들과 협력해 안전관리의 핵심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를 노동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안전보건기술'에 대한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소한 위험도 놓치지 않는 관심이 안전문화 확산의 시작입니다.”



Q 식품업계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식품업계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만큼 위험요소를 간과하거나 위험구역에 쉽게 노출되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한 안전관리와 사소한 위험까지 놓치지 않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작은 사고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관심과 경각심이 곧 안전문화 확산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안전모 쓰고 가위바위보!



예비산업인력 안전문화 캠페인

5월 12일과 13일, 충주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의 대표 축제 '단월 대동제'에서 미래 산업의 주역이 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산업인력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학축제와 연계하여 예비산업인력에게 보호구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됐다.



1. 안전모 착용하고 가위바위보 2. 안전장갑 스피드 게임 3.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예비산업인력 안전문화 캠페인'



4. 참여자 기념품 증정 5. 대학생 취향을 반영한 포토카드

참여자 눈높이 맞춤 체험 프로그램, 안전 인식 변화 도모

5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진행된 행사에 대학생과 지역주민 등 244명이 행사장을 찾아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충북북부지사 직원 및 충주지청 감독관 등 14명의 스태프가 교대로 부스에 투입되어 행사를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안전보건공단 유튜브 채널을 구독(1단계)하는 것을 시작으로 2단계 '안전장갑을 활용한 스피드 게임', 3단계 '안전모 착용 가위바위보 게임'을 순서대로 진행하고 기념품을 증정받았다. 특히 1단계 기념품인 포토카드는 대학생들의 취향에 맞는 재치 있는 문구와 디자인으로 큰 호평을 받았다. 안전보건공단 캐릭터를 활용, 행운·취업·시험대박을 기원하는 부적을 콘셉트로 제작한 포토카드는 젊은 층의 소장욕구를 자극함과 동시에 온라인, SNS 등을 통해 그 메시지가 확산되는 효과를 기대하게 했다. 2,3단계 기념품인 그림톡과 휴대용 선풍기 역시 행사 시기에 적절한 실용적 아이템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참여자들은 "교내에서 짧은 시간 동안 유익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좋았다"며 행사를 반기는 한편, 공학 전공자 및 현장직으로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은 "아직 강의시간에는 안전 교육을 심도 깊게 다루지 않는데, 이번 기회에 실무 현장에서의 안전장비 중요성을 체득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안전보건공단 충북북부지사 지사장은 "안전을 어렵고 딱딱하게 느끼지 않도록 학생들과 일반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부스를 준비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안전에 관심을 갖고 중요성을 인식하는 큰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5.5.12.(월) 10:00~5.13.(화) 12:00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내 행사장
- **내용 :** 안전보건공단 홍보 및 보호구 체험

지역사회와 함께 걸은 안전의 발걸음



2025 아산 백의종군길 걷기대회 캠페인

4월 27일, 아산시 곡교천 야구장에서 열린 '백의종군길 걷기대회' 현장에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이 마련됐다. 천안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걷기대회에 참여한 시민 약 300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 속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1. '안전한 일터, 모두의 행복' 현수막이 설치된 부스 2. 생활밀착형 안전메시지 전달에 노력함 3.4. 걷기 코스를 따라 이동하며 자연스럽게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홍보 활동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이는 생활체육 행사에 안전메시지를 결합함으로써 '안전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 속에서 지켜져야 할 가치'임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족 단위 참가자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

시민 속으로 들어간 안전메시지

행사 부스에는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의 슬로건이 담긴 현수막이 설치돼 참가자들의 시선을 끌었고, 걷기대회 참가자들에게는 생수와 함께 안전문화 홍보물품이 제공됐다. 이는 단순한 기념품 배포를 넘어, 걷기라는 건강한 활동과 '안전'이라는 가치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한 취지였다. 참가자들은 걷기 코스를 따라 이동하며 부스를 자연스럽게 접했고,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안전수칙과 안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야외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생활 주변의 작은 위험요소에 대한 인식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중심이 되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일상과 함께하는 안전의 가치 알리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안전이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 현장만의 과제가 아니라, 가정·여가·지역사회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공통의 과제임을 체감했다.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슬로건 현수막 역시 '안전은 선택이 아닌 기본'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시민들의 인식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특히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작은 위험 요소들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하며, 평소의 관심과 습관이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강조했다. 또한 시민 스스로가 안전의 주체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안전 실천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 공동체의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메시지는 행사 이후에도 일상에서 안전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축제와 연계한 생활밀착형 안전문화 확산 모델로서 의미가 크다.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걷기대회 속에 안전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녹여냄으로써, 강요가 아닌 공감과 참여를 통해 안전의 가치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안전은 삶과 분리된 규칙이 아니라, 일상과 함께 걸어가는 가치'라는 인식이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5.4.27.(일) 08:00~13:00
아산시 곡교천 야구장 인근(걷기대회 코스 중간 쉼터 부스 운영)
- **내용** : 안실단 현수막 설치, 생수 및 홍보물품 배포, 시민 대상 안전문화 홍보

산업현장에서 지킨 안전의 약속



2025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정기보수 안전캠페인

4월 29일, 서산 대산읍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서문에서는 정기보수 기간을 맞아 안전캠페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를 비롯해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롯데케미칼 및 파트너사 안전관리자 등 서산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원 50여 명이 참석해, 정비보수 작업에 참여하는 협력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을 전파했다.



1.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열린 정기보수(T/A) 안전캠페인 2. 노동자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현수막 게시 3. 생수, 간식, 장갑 등 홍보용품 배포 4. 관계기관, 기업, 협력사가 모두 함께 참여한 캠페인

정기보수 기간은 평소보다 작업 공정이 복잡하고 여러 협력사가 동시에 투입되는 시기로, 작은 부주의가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은 시점이다. 이번 캠페인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작업 시작 전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동자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었다.

정비보수 현장 속 실천형 캠페인

이번 캠페인은 정기보수 참여 노동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현수막과 피켓을 통해 핵심 안전수칙을 시각적으로 전달했으며, 리플렛과 홍보용품을 배포해 작업 전·후에도 안전 메시지를 상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간식과 생수가 제공돼 이른 아침부터 현장을 찾은 노동자들이 부담 없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현장에서는 “정기보수 기간이야말로 안전이 가장 절실하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참여자들은 보호구 착용, 작업 전 위험요인 확인, 작업 절차 준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경험이 많은 노동자일수록 익숙함으로 인한 방심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안전은 반복적인 확인과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메시지를 되새겼다.

이번 캠페인은 서산 안실단의 다양한 기관과 기업이 함께 만든 ‘원팀(One Team)’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도 의미가 크다. 공장 내부 노동자뿐 아니라 협력사와 외부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이 특정 주체의 책임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기보수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캠페인의 의의 및 기대효과

이번 안전캠페인은 정기보수라는 고위험 작업 시기에 맞춰 현장 중심의 안전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관계기관과 기업, 협력사가 함께 참여한 협력 모델을 통해 안전은 개별 주체의 책임이 아닌 공동의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기보수 현장 전반에 안전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5.4.29.(화) 06:00~08:30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서문
- **내용** : 정기보수 참여 노동자 대상 안전수칙 홍보, 현수막·피켓 게시, 리플렛 및 홍보용품 배포, 생수 제공

PART 03.



**본부
우수사례**

안전은 협력과 연대로 더 넓어질 수 있다.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본부는

다양한 기업·기관과의 협약과 공동 캠페인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의 흐름을 사회 전반으로 이끌고 있다.





현장 안전문화 확산, 안전의식 고취

2025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2025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우수사례 발표회

전국 39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에서 제출한 사례 중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7건에 대해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으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안실단 참여기관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성과를 환류하는 자리가 되었다.



1. 2025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우수사례 발표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에서 모이다

행사 현장에는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부단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홍보이사를 비롯한 실무자와 지역별 안실단 우수사례 발표기관들이 자리했다.

부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난 9월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중대재해를 줄이고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문화 확산 노력이 중요하며 오늘 발표할 7건의 사례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사례가 널리 공유되고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6년에는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의 명칭을 새롭게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문화 확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교육홍보이사는 “현 정부 들어서 중대재해 감축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수치상으로는 전년도보다 중대 재해가 더 발생하고 있어 아쉽다”면서 “현장 안전문화 확산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발표될 사례들을 널리 확산하고 알려 국민 안전의식 고취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상 -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대전·충청권역의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이하 한전충남본부)가 선정됐다. 한전충남본부는 대전·세종·

충남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담당하기 위해 1,551명의 인력이 49,000여 개의 철탑, 77개의 변전소, 130만 여개의 전주를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약 12만 건(일 평균 약 442건)의 공사를 진행해왔다. 2024년, 협력사 중대 재해 사고 2건이 발생하는 등 현장 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25년, 작업자의 안전수칙 내재화 및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3대 핵심 분야(안전문화, 대외협력, 현장개선)를 제정, 추진하기 시작했다.

안전문화 부문에서는 ▲안전송 제작 및 안전스토리텔링 콘서트 ▲정부-한전-협력사 안전결의대회 ▲Safe 대전 전기안전 체험부스 운영 ▲중처법 대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실행했고, 대외 협력 부문에서는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협력사 전기분야 안전보건 아카데미를 시행했으며 현장개선 부문에서는 본부안전보건시스템 구축 ▲특별 안전점검 TF운영 ▲반복재해 예방 안전장구 개발 등을 추진해 성과를 거뒀다.

행사 개요

- 일시 : 2025.12.1.(월) 13:30~17:00
- 내용 :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우수사례 발표



2. 우수사례 수상자 단체 사진

최우수 - 2개 권역

광주·전라권역의 공무원연금공단은 안전문화와 제주 권당문화(생활문화)가 접목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등을 활용하여 지역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대구·경북 권역의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는 'ESG 안전문화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대구·경북 지역 노동자의 안전의식 향상과 산재율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우수 - 4개 권역

서울·강원권역의 한국주택관리사협회는 '사다리 N 안전모 캠페인'을 통해 건물관리업 사다리 추락사고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펼쳤고, 부·울·경 권역의 롯데정밀화학은 A·C·E(Activation-참여활성화,

Collaboration-협력, Experience-체험) 실행을 통한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을 선도했다.

인천권역의 브니엘네이처(주)는 현장 내 위험요소를 개선하고 안전경진대회, 직원 안전워크숍 등을 펼치는 한편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안전제한함, 비상대응 훈련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권역의 스타필드 수원은 기존 산업형 안전문화 형성의 한계를 파악하고 생활형 안전문화의 필요성을 제시, 단순한 소비 공간을 넘어 안전을 우선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났다.

한편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사례들이 널리 확산하여 각 기관, 사업 현장에 알맞은 안전문화 활동, 안전의식 고취 활동이 이루어져 중대재해가 감축하는 효과를 거두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3. 대상을 수상한 한국전력 대전세종충남본부 발표장면
4. 대전세종충남본부가 기획한 안전송 스토리텔링 공연

Q 대상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2024년에 중대재해 사고가 2건 발생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본부 3대 핵심분야를 제정했고 성과가 따라줘서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상을 시작으로 삼아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 본부는 앞으로도 현장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Q 수상 사례를 발전시킬 계획이 있으신가요?

2026년에는 안전문화 스토리텔링 콘서트를 본부 내 사업 담당자 및 협력회사 대표들에게 전파하여 본부 전체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3대 핵심분야를 보완하여 보다 촘촘하게 사업장 안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Q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우리 본부는 직원 다섯 명이 안전스토리 TF를 결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안전교육을 넘어 스토리텔링을 겸한 안전송 콘서트를 진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 협의체 협력사 대표님들에게 선보인 공연이 큰 호응을 얻은 것은 물론 현장의 안전 관리를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결의도 다졌습니다.

이렇듯 안전문화 확산은 협력사들이 뜻을 같이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본부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와의 상생을 도모하면서 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이 곧 기업의 내일

이넵스(주)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캠페인

노동부-공단-전문건설업
12개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주요 전문건설사와의 협업을 통한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위험표지판 부착, 자체 안전수칙 제정 등 다양한 협업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1. 캠페인에 참여한 산업 현장 종사자와 임직원



2. 이넵스 본사에서 진행되는 안전보건경영회의



3. '이넵스 파수꾼 운동' 참여 노동자 포상

안전수칙, 실천이 중요

2010년 설립된 이넵스는 바이오·제약, 하이테크, 클린룸, HVAC 분야에 설계, 조달, 시공 등 종합적인 산업플랜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넵스는 '미래를 위한, 세계를 향한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이넵스라는 사명은 '이로움(利)'과 'Navigator'의 합성어다. 사명에서 알 수 있듯 이넵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모두 사람의 이로움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이넵스가 추구하는 가치는 노동자에게 먼저 닿고 있다. 이넵스는 전문건설안전보건협의회 회원사 소속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기적인 현장 점검은 기본이고 작업장 위험물 및 안전표지판 설치, 전문건설업 10대 안전수칙 제정 및 전사적 교육,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 대상 안전관리 강화,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안전문화 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11월 6일 캠페인도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분기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회의를 진행하여 다른 현장의 우수 사례와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있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실천인 만큼 회의를 통해 얻은 안전 정보는 이넵스 현장에 맞는 체계를 만들어 실천 중이다.



생생 Talk Talk! 인터뷰

이넵스(주) 대표 이동일



“목표 설정과 반복적 점검, 적극적 참여가 재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합니다. 목표 설정과 반복적 점검,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Q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표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경영진과 현장이 같은 목표로 움직이는 것’이 핵심 원칙입니다. 이넵스는 목표를 경영층에서만 세우지 않습니다. 대표와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 점검과 위험성평가를 통해 같은 목표를 공유합니다. 이렇게 ‘사전 예방(위험 발굴) → 현장 소통(노동자 참여) → 즉시 개선(조치와 표준화)’을 반복하면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목표와 현장의 실행력이 안전한 근로환경의 출발점입니다.

Q 안전문화협의체에서 활동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전문건설안전보건협의회 회원사로 활동하면서 ‘현장 안전 수준을 업(UP)시키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사업 자체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고용노동부,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힘을 모아 업무 표준을 만들고, 이러한 내용이 소규모 현장에까지 실효성 있게 전달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Q 이넵스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안전사고는 무엇이고, 안전사고 예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과거 발생 빈도가 높았던 부딪힘, 넘어짐, 끼임 세 가지 재해 유형을 우선순위로 삼아 해당 재해를 50% 감축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정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영진부터 임직원 모두 참여하는 실행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대표와 경영진이 직접 각 사업장을 점검하여 세 가지 재해를 중심으로 사전 부적합 사항을 발굴하였습니다. 정기 점검을 통해 각 사업장에서 최소 2건의 부적합 사항을 도출하였고 그 결과를 현장소장 및 관리감독자와 즉시 공유하여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때 도출된 개선사항은 표준 운영절차에 반영하여 모든 사업장으로 확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 2025년 10월 말 기준, 저희가 선정한 세 가지 재해가 0건으로 집계되어 당초 수립한 안전보건 경영목표를 100% 이행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경영진과 임직원이 같은 목표 아래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라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

안전, 함께 만들어 가다

2025년에는 ‘이넵스 파수꾼 운동’이라는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넵스 파수꾼 운동은 카카오톡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노동자의 안전·보건 의견을 접수하는 채널이다.

기존에도 위험성 평가나 작업 전 점검(TBM) 등에 노동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접근성과 즉시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이넵스 파수꾼 운동 채널은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실용적이다. 접수된 의견은 본사와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치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실제로 이러한 실시간 접수·처리 체계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접수·조치 내역은 매월 안전보건경영회의에서 공유하고 있으며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 의견을 제안한 노동자에게는 포상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안전 활동이 특정 담당자의 업무가 아니라 전 직원이 함께하는 문화로 자리 잡는 성과로 이어졌다.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5.11.6.(목) 인천 송도 삼성 E&A 현장
- 내용 : 표지판 정비, 작업 동선 개선, 보호구 착용 강화 교육 등



- 4. 산업 현장 안전 점검
- 5. 산업 현장 안전표지판 설치
- 6. 이넵스 파수꾼 운동 안내 자료





모두 함께 나아가는 안전 향해로

HD현대삼호 안전문화 확산 활동



1. 안전결의대회 및 안전캠페인

노동부-공단-조선업
8개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주요 조선사와의 협업을 통한 조선
업계 전반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24년 5월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외국인노동자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무재해 결의
대회 등 다양한 협업 활동을 추진
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안전 수칙 기억하기



- 2.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얼음물을 제공하는 모습
- 3. 찾아가는 이동식 VR 교육
- 4. 선박 건조 산업 현장

HD현대삼호는 전라남도 영암군에 있는 선박 및 해양설비를 건조하는 조선해양전문기업이다. 1999년 창립 이후 계속해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2024년 '안전문화 협의체'의 일부가 된 이후로, 다양한 안전 관련 캠페인을 선도하고 있다.

이곳은 대형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여서, 작업공정이 넓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밀폐공간, 크레인, 추락 사고에 대한 위험이 크다. HD현대삼호는 이를 '밀·크·티(밀폐공간, 크레인, 떨어짐)'로 명명하고, 이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화장실, 계단 등 곳곳에 안전 문구 및 홍보물을 부착했다. 어디서든 안전 수칙을 상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안전 수칙이 적힌 명함과 컵홀더 또한 제작해서 배포했다. HD현대삼호 노동자들은 이러한 캠페인을 반갑게 맞이했다. 안전 수칙과 문구에 계속 노출되니 자연스럽게 안전에 유의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외국인 직원이 많은 기업답게, 해당 직원 대상 캠페인 또한 다채롭게 펼치고 있다. 영어뿐만 아니라 베트남어, 네팔어, 우즈베크어 등 9개국 언어로 된 '안전 수칙 포켓북'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기본 안전 수칙 외에도 현장에서 필요한 세부 점검항목을 함께 수록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어 보람차다고 말한다.



HD현대삼호 상무 이승훈



5.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HD토픽 6. 그린스텝 ESG 실천 마라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독창적인 시스템

HD현대삼호는 사고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시스템’이라고 말한다. 자율 안전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 생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통합안전점검앱인 ‘SafetyOne’을 도입했다.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작업 전 루틴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자, 노동자들이 좀 더 간편하게 안전 수칙을 따를 수 있게 됐다. 또한 보상 시스템을 마련해 노동자들에게 앱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안전 활동에 참여하면 ‘삼호페이’를 적립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삼호페이’는 카카오페이로 전환 가능하며, 격려와 보상 중심의 안전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중추 역할을 한다. 이 모든 것은 HD현대삼호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안전을 넘어 동료들의 안전 역시 세심하게 지켜준다. 한 노동자는 “안전한 일터는 모두가 실천해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동료가 안전 수칙을 따르지 않으면, 모두가 나서 주의를 주곤 합니다.”라고 말했다. 안전 캠페인 유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켜줄 뿐 아니라, 노동자들 간의 관계 또한 돈독하게 만들어 줬다. HD현대삼호는 앞으로 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HD현대삼호가 나아가는 길은 곧 ‘안전’으로 향하는 길이다.

Q HD현대삼호가 ‘안전문화협의체’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4년도 협의된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은 조선업의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입니다. 협약은 각 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부 및 공단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안전문화 기반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였고, 이에 기획 초창기부터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Q 안전문화협의체 소속 기업으로서 정기적으로 하는 활동이 있나요?

저희는 분기별 회의 외에도 지도점검, 예방 캠페인 등

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협의체에서 선정된 주제에 맞추어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사내 안전문화 전파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제로는 사외 안전관리,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Q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안전사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예방하고 있나요?

조선업에는 대표적인 3대 사고가 있습니다. 바로 밀폐공간, 크레인, 추락 관련 사고입니다. 저희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현장에서 실시되는 ‘1·2·3 점검 Day’ 제도입니다. 이는 매월 1일, 2일, 3일에 지정된 항목을 전 부서가 자체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각각 점검하는 항목이 다르며, 점검이 완료되면 색상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관리 이력을 표시합니다. 이를 통해 점검 누락을 방지하고, 중대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Q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HD현대삼호의 다짐은 무엇인가요?

일을 진행할 때 안전 수칙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는 괜찮겠지’가 아닌 ‘나 하나가 안전 수칙을 지켜야 모두가 안전해진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현장 노동자뿐 아니라 임원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안전문화는 모두가 함께 지켜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의 핵심 목표는 ‘자율 안전 체계 구축’의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도, 내년도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으로 시작하는 하루, 마지막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체험과 현장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안전한 여름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동아오츠카-제주항공 민관합동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노동부-공단-동아오츠카-제주항공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3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온열질환 예방과 관련한 예방 메시지 전파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1. 민관합동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단체사진

현장 맞춤형 솔루션, 체험으로 배우는 안전 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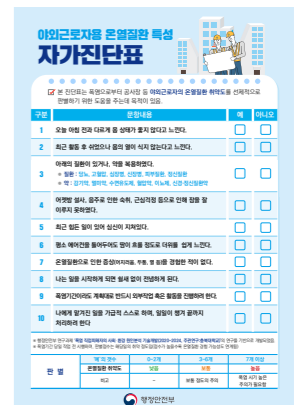
나날이 심해지는 폭염과 비행기 엔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공항 활주로 위의 노동자들은 늘 온열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번 캠페인은 이러한 공항 노동자와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요령과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교육하고, 여름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포공항 에어사이드 운영부 앞에 설치된 부스에서 안실단은 제주항공 정비사들에게 시원한 이온 음료를 건네며, 폭염과 탈수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고 온열질환 예방 트레이닝을 진행했다. 정비사들은 안내에 따라 야외노동자용 온열질환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측정, 스트레스 측정을 등을 직접 체험했다. 또한, 기기를 이용하기가 어려울 때 소변 색으로 탈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매일 근무 전 몸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이어 노동자들은 귀밑 동맥 부위를 얼음 마사지해 체온을 낮추는 보냉기구를 체험하며, 충분한 휴식과 올바른 수분 섭취법 안내에 귀를 기울였다. 폭염에는 땀을 통해 물뿐만 아니라 나트륨과 칼륨



같은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해질이 포함된 이온 음료로 몸에 오래 남는 완전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온열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히 안전 수칙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노동자들이 현장 맞춤형 설명을 들으며 스스로 몸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야외근로자 온열질환 자가진단표 바로가기



2. 시원한 이온음료를 건네며 폭염과 탈수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 3.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측정, 스트레스 측정 체험 4. 체온을 낮추는 보냉기구를 체험하는 노동자들



4.5. 노동자 근무 여건과 온열질환 예방 조치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관계자들 6. 항공 정비사 근무 현장을 방문하는 관계자들

책상 너머,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의 의미

이날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 남부지청장,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장, 서울남부지사장, 제주항공 대표이사, 동아오츠카 임원 등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 했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항공사 노동자들의 현재 근무 여건과 예방 조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동아오츠카는 온열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이온 음료로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철학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며 공감을 얻었다.

이어진 현장 점검에서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제주항공,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들이 주요 근무 현장을 찾아 휴게시설과 근무환경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뜨거운 햇빛 아래 설치된 부스를 방문해 활주로의 무더위를 몸소

느끼고, 보냉장비와 이온 음료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근로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며 만들어진 공감대는, 앞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폭염 대응 대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장은 “이번 캠페인은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안전 점검을 병행한 것이 특징”이라며, “폭염 속에서도 모든 실외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5.8.5.(화)
김포국제공항 에어사이드 운영부 앞
- ➔ **내용** : 민관합동 공항 내 관리자 및 노동자 대상 폭염 대응 요령과 온열질환 예방 수칙 교육

생생 Talk Talk! 인터뷰

동아오츠카 사이언스 파트 책임(파트장) **김경희**

Q 평소 안전보건공단과 동아오츠카는 어떻게 협력 해오셨나요?

동아오츠카는 2023년부터 안전보건공단과 협약을 맺고,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품 라벨에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을 부착했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행정지원을, 동아오츠카는 기술지원을 맡아 민관합동 온열질환 캠페인을 공식 사업화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 덕분에 저희가 연구한 예방 솔루션을 실제 사업으로 구현해 노동자들에게 닿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아오츠카를 국민 건강을 위한 진정성을 가진 파트너로 받아들여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Q 동아오츠카의 사이언스 파트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포카리스웨트의 기능적 가치와 의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며, 국민 건강 증진에 힘쓰는 파트입니다. 메디컬 사이언스에서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 현장의 온열질환 위험을 분석하고 대응 가이드를 개발하며, 교육·홍보 자료를 제작해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정부와 협력해 공익광고, 안전문화 확산 로고 부착, 국제 안전보건 전시회 참여, 기업 캠페인 참여 독려 등 지속 가능한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과 ‘안전’입니다.”



펼치고 있습니다. 스포츠 사이언스에서는 과학적 지원과 영양 가이드로 운동 선수의 퍼포먼스 최적화를 돕고, 스포츠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프로그램과 교육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동아오츠카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어떤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신지요?

동아오츠카는 특정 계층을 넘어 기후 재난에 직면한 국민 모두에게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노동부, 공단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온열질환 취약 환경의 노동자들을 위한 솔루션과 안전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캠페인에 함께한 기업들에게 받은 사랑을 정부 및 기업들과 함께 중소기업 사업장에 지원하며, 협력한 기업들과 ESG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Q 야외나 고온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관리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과 ‘안전’입니다. 소중한 한 사람의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수분·그늘·휴식’이라는 기본 원칙을 강조하는 일입니다. 더불어 물은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얼마나 쉬어야 회복되는지에 대한 보건의료적 이해를 갖춘 관리자들이 현장에 맞춘 행정을 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현장의 더위와 솔루션의 효과를 관리자 스스로 체험해보는 것 역시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경각심과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예방 활동이 현장에서 실천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5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활동 사례집

발행일 2026년 1월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김현중

발행처 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부

디자인 효민디앤피

취재 효민디앤피

이 교재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정, 편집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다른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를 금하며, 자료 내용은 안전관리 업무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참고자료로 업무상 이의제기 등 소명자료로서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